

신동빈, 사면초가

metr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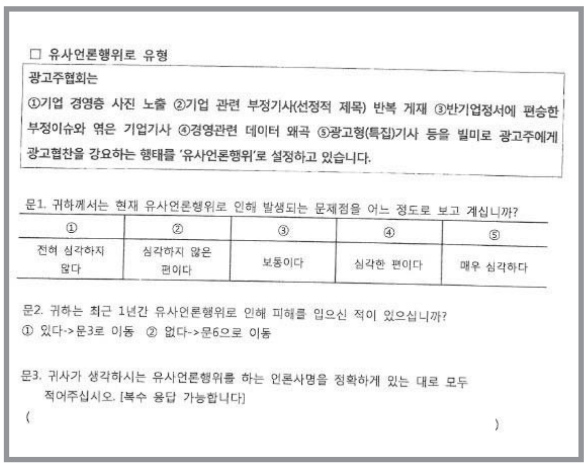
메트로 2015년 8월 3일 월요일 제3271호 www.metroseoul.co.kr

market index <7월31일>

지표	지수	변동
코스피	2030.16	(+11.13)
코스닥	725.06	(+12.20)
금리(국고채 3년)	1.77	(+0.03)
환율(원·달러)	1172.20	(+1.80)

“조·중·동·매경도 사이비”

광고주협 ‘유사언론 조사’ 결과 유력지·종편 등 대형사도 다수 “큰 매체 협찬 요구가 더 심각”



□ 유사언론행위로 유형

광고주협회는
①기업 경영층 사진 노출 ②기업 관련 부정기사(선정적 제목) 반복 게재 ③반기업정서에 편승한 부정이슈와 엮은 기업기사 ④경영관련 데이터 왜곡 ⑤광고형(특집)기사 등을 빌미로 광고주에게 광고협찬을 강요하는 행태를 '유사언론행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문1. 귀하께서는 현재 유사언론행위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전혀 심각하지 않다	심각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심각한 편이다	매우 심각하다

문2. 귀하는 최근 1년간 유사언론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문3로 이동 ② 없다->문6으로 이동

문3. 귀사가 생각하시는 유사언론행위를 하는 언론사명을 정확하게 있는 대로 모두 적어주십시오. [복수 응답 가능합니다]
( )

광고주협회의 의뢰를 받아 한국리서치가 지난 6월 중순 국내 대기업 홍보담당자들에게 발송했다는 ‘유사언론 실태조사’ 이메일 설문의 일부. /출처=한국리서치

한국광고주협회(회장 이정치)가 최근 발표한 ‘2015 유사언론 실태조사 결과’ 원 보고서에 이른바 유사언론(사이비언론)으로 중소 인터넷 매체들 뿐아니라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동아일보·매일경제·경향신문 등 유력지와 TV조선·채널A·MBN 등 방송사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예하 한국광고주협회는 7월 1일 각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500대 기업 홍보담당자들을 상대로 이메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사언론으로 192개 매체가 선정됐다”면서도 구체적인 매체명은 메트로신문 1개사만 공개한 바 있다.

2일 광고주협회의 의뢰를 받아 한국리서치가 작성한 ‘2015 유사언론행위 피해실태 조사’ 보고서를 입수해 살펴보니, 광고주들에게 의해 유사언론으로 지목된 언론사에는 사이비언론행위의 주범으로 매도당하고 있는 인터넷 중소 매체들뿐아니라 이른바 메이저 신문과 방송사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한국리서치는 보고서에서 “유사언론행위는 광고주협회에서 정의한 5개 유형, 즉 ▲기업 경영층 사진 노출 ▲기업관련 부정기사(선정적 제목) 반복 게재 ▲반기업 정서에 편승한 부정 이슈와 엮은 기업 기사 ▲경영관련 데이터 왜곡 ▲광고형(특집기사)기사 등을 빌미로 광고주에게 광고협찬을 강요하는 형태 등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설문은 지난 6월 중순 기업 홍보담당자들에게 “귀사가 생각하는 유사언론행위를 하는 언론사명을 정확하게 있는 대로 모두 적어주십시오(복수 응답 가능)”라고 주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광고주협회는 유사언론행위을 근절하기 위해 ▲네이버·다음 등 포털에서 유사언론의 퇴출 및 기사 제휴 중단 ▲유사 언론행위 매체 및 기자에 대한 법적 처벌 강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광고주협회는 막상 어느 매체가 유사언론으로 지목됐는 지에 대해서는 ‘메트로신문’을 제외하면 지금까지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광고주협회가 정작 사이비언론 근절에는 관심이 없고, 최근 삼성·현대차·신세계 등 재벌 비판 기사를 상대적으로 많이 취급해온 메트로신문을 폄하하고 고사시키기 위해 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국리서치 보고서에서 ‘유사언론행위 언론사’로 지목된 주요 매체를 보면,

▲종합일간지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세계일보, 아시아투데이, 매일일보 등

▲경제지 : 매일경제, 조선비즈, 헤럴드경제,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 머니투데이, 아시아경제, 아주경제, 브릿지경제 등

▲방송사 : TV조선, MBN, 채널A, 머니투데이방송(MTN), 한경TV, CBS, 서울경제TV 등

▲인터넷매체·기타 : 데일리안, EBN, 미디어펜, 연합인포맥스, 뉴데일리, 노컷뉴스, 쿠키뉴스(국민일보), CEO스코어데일리, 뉴스웨이, 뉴스핌, 프라임경제, 경제투데이, 비즈니스워치, 르몽드디플로마티크, 아이뉴스24, 민중의소리, 스카이데일리, 위키트리, 머니투데이더벨, 비즈니스포스트, 서울파이낸스, 컨슈머타임스, 폴리뉴스, 글로벌이코노믹(그린경제), 스페셜경제, 중앙뉴스, 증권일보, 한국증권신문, 에너지경제신문, 환경일보, 국토일보, 경기신문, nsp통신, 이투뉴스, 초이스경제, 미디어잇, 약사신문, 소비자가만드는신문, 데일리한국, 씨앤비뉴스, 팝콘뉴스, 화이트페이퍼, 더팩트, 브레이크뉴스, 아시아타임즈, 비즈스코리아, 에너지코리아, 한국언론인협회, 비즈한국, 헬스경향,

스포츠조선, 스포츠서울, 뉴시스, 뉴스1, 뉴스토마토, 한국스포츠경제, 조세일보, 여성신문, 여성경제신문, 시사저널, 일요신문, 일요서울, 일요시사, 일요주간, 일요저널, 민주신문, 시사위크, 시사포커스, 시사오늘, 시사서울, 시사주간, 토요신문, 토요경제, 사건의내막, 월요시사, 월요신문, 일요경제, 주간현대, 위클리오늘, 위클리서울, 재경일보, 중소기업신문, 현대경제신문, 천지일보, 소비자경제신문, 머니위크(이상 무순) 등이다.

한국리서치는 “보고서에 적시된 매체들은 설문에 응한 홍보담당자들 중 최소한 1%이상이 ‘유사언론행위를 하는 매체’라고 명기한 언론사들이다”고 밝혔다.

이른바 ‘1등 신문’을 자처하는 조선일보의 경우 본지 뿐아니라 자회사인 종합편성채널(종편) TV조선과 인터넷 경제지 조선비즈, 자매지 스포츠조선도 죄다 유사언론에 포함됐다.

미디어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머니투데이도 본지와 함께 더벨· 뉴스1· 뉴시스· 머니투데이방송· 머니위크 등 대부분 계열 매체들이 줄줄이 유사언론으로 엮였다.

동아일보와 매일경제는 각자의 종편 자회사(채널A, MBN)와 함께 광고주가 뽑은 유사언론에 선정됐다.

광고주협회의 유사언론 보도자료 발표를 즈음해 ‘사이비언론 제보센터’를 개설, 운영 중인 연합뉴스의 계열사인 연합인포맥스도 유사언론행위를 하는 매체로 지목됐다.

이들 중 상당수는 지난달 초 광고주협회가 보도자료를 낸 직후 “광고주가 뽑은 나쁜 언론에 메트로신문”(중앙일보), “유사언론 1위는 메트로”(조선일보) 등의 제목하에 광고주협회 주장을 거의 그대로 베껴쓴 기사를 작성,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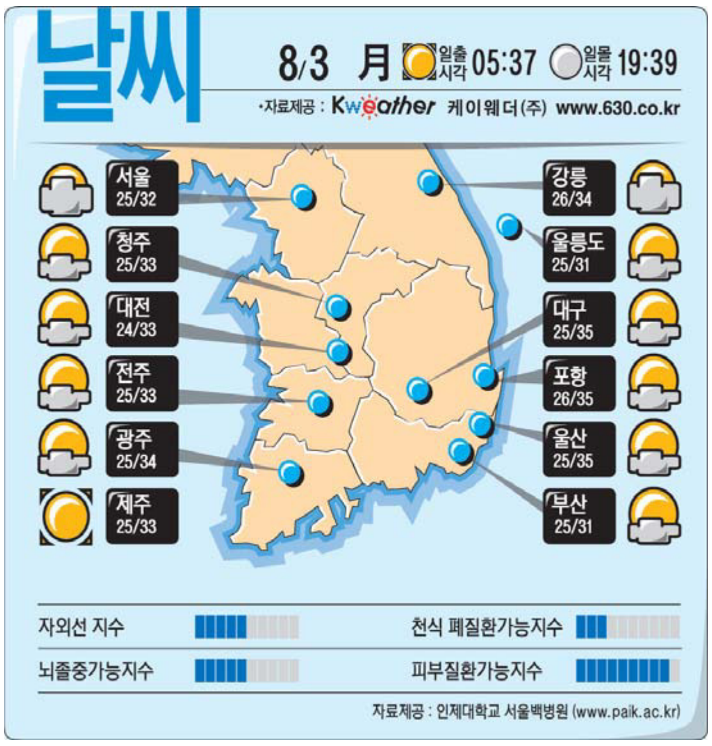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경향신문과 르몽드디플로마티크, 민중의소리 등도 유사언론에 포함됐다.

청와대 민병호 뉴미디어정책비서관이 소유주로서 10여년간 운영해온 인터넷 매체 데일리안 및 EBN, 문화체육부 이의춘 국정홍보차관보가 실소유주로 있는 인터넷매체 미디어펜도 광고주들에 의해 유사언론으로 찍혔다.

동아일보 황호택 논설주간은 지난 6월 ‘김영란법 대신 허문도법’이란 칼럼에서 “기업을 괴롭히고 건강한 언론의 생존을 위협하는 ‘듣보잡’(듣도 보도못한 잡매체) 정리 작업” 운운하며, 민병호 비서관이 평소 “인터넷 매체 문제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정리해 놓고 청와대를 나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고 소개한 바 있다.

한 대기업 홍보담당자는 “중소 인터넷 매체들로 인해 광고·협찬 요구 빈도가 잦아진 건 사실이지만, 정작 기업 홍보비 지출의 대부분은 메이저 매체들에 집중돼 있다. 광고주협회와 일부 언론 등이 중소 매체들을 겨냥해 사이비언론 운운하지만 일선 기업 광고담당자들에게 절실한 건 메이저 매체들의 과도한 협찬요구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 같은 것이다. 소위 메이저 매체들은 광고와는 별도로 특집기사와 포럼, 공연,전시회 등 갖가지 명분거리를 들이대며 매달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씩의 협찬을 요구하고 거의 그대로 받아간다. 중소매체들이야 줘도 얼마 안되고 미룰 수도 있지만, 메이저들은 여차하면 오너나 CEO를 직접 공략하기 때문에 비협조적이었다간 되레 홍보담당 목이 위협해지는 게 현실이다”고 말했다.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정치

▲ 

경북 지역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이 40대 여성 보험설계사를 성폭행했다는 신고에 따라 경찰의 수사를 받으면서 새누리당이 또 다시 **성추문**에 휩싸였다.

▲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원이 오는 6일 개최될 **기술간담회**에서 관련 로그파일 원본공개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며 간담회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했다.

▲ **노동개혁**의 범위와 협상 방식을 두고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개혁에 국한해 협상하자는 여당과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통해 재벌개혁 등 경제전반을 다루자는 야당이 맞서고 있다.

▲ 북한이 최근 증축 공사를 마무리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미사일 발사대**에 덮개가 설치되고 있어 북한의 기습적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 민간인만 지원할 수 있는 **'경력 개방형 직위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전체 428개 개방형 직위 가운데 민간인이 채용된 직위는 지난 6월 말 현재 79개에 불과해 '개방형 직위제'가 여전히 허울 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

▲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2일 호남고속철도 제3-2공구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대림산업·포스코건설·남광토건·경남기업·삼환기업 등 5개 건설사 전·현직 임원 11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했다.

▲ 배달 오토바이가 인도로 주행하는 모습이 적발되면 해당 업소 대표도 함께 범칙금을 물게 된다. 경찰청은 **'이륜차** 무질서행위 근절을 위한 법규위반 특별단속 계획'을 확정해 이달부터 3개월간 시행에 들어간다.

▲ 법무부가 오는 4일부터 중재 대상의 범위를 넓히고 중재 요건을 완화하는 **중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발표했다.

▲ 박근혜 대통령의 외사촌 부부가 세금 체납에 따른 출국금지 처분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2일 대법원은 박 대통령의 외사촌 **육해화**씨와 남편 이석훈 전 일신산업 대표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금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 취업정보 사이트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공공기관 일자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워크넷은 지난달 말부터 공직 채용정보 전문 사이트 '나라일터'와 일자리 정보를 연계해 제공하기 시작했다.

경제·산업

▲ 
삼성전자 휴대전화 갤럭시 S6 판매 부진으로 삼성전자와 배터리 공급을 담당하는 **삼성SDI**가 함께 추락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삼성SDI 모두 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자 주가도 52주 신저가 또는 연중 신저가를 갱신하는 등 맥을 못 추고 있다.

▲ 국내 건설사 5곳이 쿠웨이트 대형 정유공사를 수주하는 등 최근 중동에서 낭보가 이어져 해외수주에 어려움을 겪은 건설사가 **'턴어라운드'**에 성공할 지 주목된다.

▲ 국내 증시가 기업의 실적 부진 여파로 고전하면서 **주식형 펀드**도 한 주간 마이너스 수익률을 나타냈다.

▲ 시중은행들이 **금리와 수수료** 혜택을 높여 고객이탈을 방지하는 한편 계열사간 시너지를 확대해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 **삼성물산**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하회하고있어 합병성사에 위험신호가 켜졌다. 주식매수청구권 기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오며 합병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국내 대형 **조선 3사**가 올해 상반기 총 4조7000억원대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면서 하반기 고강도 구조조정에 돌입한다. 핵심은 임원진 대규모 축소와 비핵심 자산 매각이지만 조선업 특성상 해양플랜트 등 사업 축소로 일반 직원 감축도 따를 전망이다.

▲ 재벌닷컴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그룹 10곳 중 7곳이 **수출 성장세**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을 제외한 자산 상위 10대 그룹의 작년 해외 매출액은 546조4천억원으로 전년의 573조1000억원보다 26조7000억원(4.6%) 감소했다.

▲ **한화그룹**이 2017년까지 총 1만7569명에 이르는 고용 창출 규모를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는 상반기의 2배 가까이 확대한다.



해운대, 물 반 사람 반 불볕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2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즐기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이날 해운대에는 80만명이 몰렸다. /연합뉴스

유통

▲ 
신동빈 회장이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승리해도 한국 롯데는 가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신격호 총괄회장이 한국 롯데의 지주사격인 '호텔롯데'의 과반수 이상 지분을 'L투자회사'와 '광윤사'를 통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신 총괄회장의 판단력이 건재하다는 증거들이 나오며 신 회장의 입지는 날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 **롯데그룹**이 중국과 홍콩에서 최근 4년간 1조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했다는 자료가 나왔다. 이는 신동빈 회장의 해임 정당성을 뒷받침 하는 자료다. 앞서 롯데그룹은 해외 진출 첫해인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적자가 1600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 우유 소비 감소로 실적부진에 시달리는 유업계가 **프리미엄 우유** 신제품으로 실적개선에 나섰다. 프리미엄 우유를 통해 시장을 확대하고 갈수록 하락하는 영업이익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 이달 중 삼광글라스의 유리 밀폐용기 **'글라스락'**이 캐나다 코스트코에 입점될 예정이다. 삼광글라스는 북미 신규 판매채널도 확보해 매출 확대에 박차를 가할 예정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

▲ 사상 최대 규모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협상**이 유제품, 신약 특허기간 등의 쟁점에 부딪쳐 결국 무산, 향후 협상 전망도 불투명해졌다.

▲ 지난 7월 중국의 제조업이 전혀 성장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세계 2위 경제대국 **중국 경제**의 장기 침체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 미국의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WSJ)가 SK의 SK C&C 합병에 대해 **최태원** 회장의 옥중 경영의 결과라며 "한국의 재벌에게는 감옥도 무용지물"이라고 비판했다.

▲ 일본 궁내청이 종전 70년을 맞아 일왕 **히로히토**의 태평양전쟁 항복선언을 디지털로 복원해 공개했지만 여전히 음질이 알아듣기 힘든 것으로 전해졌다.

▲ 미국의 국가안보국(NSA)가 적어도 2006년부터 일본의 정부와 기업에 대한 **도청**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나 국제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 미국 공화당의 2016대선 주자인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는 멕시코인 아내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신의 아들도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털어놨다.

친박도 비박도 친동생도, 청와대 '디스'

<무례나 결례의 의미인 disrespect의 준말>

친박 장관들 '총선 행보'
김무성 "중국보다 미국"

한마디로 청와대의 영이 안서고 있다.

유승민 사태 이후에도 비박근혜(비박) 새누리당 지도부는 해외에서 자기정치를 선보였다. 박 대통령의 거듭된 금족령에도 내각에 입성한 친박근혜(친박) 정치인들은 내년 총선 준비에 열심이다. 심지어 혈육인 여동생마저 친일 망언으로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놨다. 모두 박 대통령이 하반기 국정운영 구상을 위해 청와대에서 휴가 아닌 휴가를 보내는 동안 발생한 일들이다. 국정 복귀를 하루 앞둔 2일 박 대통령의 심사는 휴가 전보다 더 복잡할 듯하다.

박 대통령의 공식 휴가는 지난달 27일 시작됐다. 한중관계를 흔드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발언도 이날 나왔다. 방미 중이던 김 대표는 27일(현지시간) 저녁 워싱턴 특파원들과 만나 "미국은 대체가 불가능한 독보적 동맹"이라며 "우리에게는 역시 중국보다 미국"이라고 했다. 직전 우드로윌슨센터 연설에서는 "한미관계는 전면적인 관계이고 한중관계는 분야별 일부의 관계"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제안한 아시아안보협력기구에 대놓고 반대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휴가 근황을 전했다. /연합뉴스

김 대표야 이번 방미로 친미보수 정치인의 이미지를 확실히 굳혔지만 그 대가는 박 대통령이 치르게 됐다. 한국 집권당 대표가 드러낸 본심에 중국의 보이지 않는 보복이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14년 한중 교역액은 2354억 달러로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다. 갈수록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동시에 자동차와 스마트폰 등 주력산업에서 한중 간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해지는 상황이다. 중국의 보복은 치명적이다.

중국이 사드(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로 벼르는 상황에서 한국은 최대한 말을 아껴 꼬투리를 잡히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가 사드 공론화에 나섰던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자기정치를 한다'며 비판했던 이유다. 유승민 축출의 교훈을 무시한 듯 김 대표는 노골적으로 중국을 무시했다. 측근들에게서는 "현 정부 들어 한국이 중국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미국 조야의 우려가 큰 게 사실이며 이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었다"는 말이 나왔다. "청와대 얼라들" 만큼은 아니지만 청와대가 외교를 잘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나 다름없다.

청와대의 골칫거리는 비박계 지도부만이 아니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7일 "국무위원들은 개인적 행보가 있을 수 없다. 오직 국민을 위한 헌신과 봉사로 나라 경제와 국민의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며 의원 겸직 장관들의 총선 행보에 제동을 걸었지만 먹혀들지 않았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이 일주일만에 "출마는 당연하다"고 공언하자 박 대통령은 다시 일주일 뒤 "모든 개인적인 일정은 내려놓으라"고 재차 경고해야 했다.

거듭된 경고에도 장관들의 총선 행보는 계속되고 있다. 공개 발언만 없을 뿐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한 달에 한번은 지역구인 경북 청도·경산을 찾고 있다. 29일부터는 휴가를 얻어 지역구 관리에 올인하고 있다. 심지어 지난 대구 시당위원장 경선에도 관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황우여 사회부총리는 주중에는 세종시에서, 주말에는 지역구인 인천 연수구에서 보내는 이중생활로 인해 주변에서 "대놓고 총선준비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의 재경고에도 불구하고 김 장관 역시 "대놓고 준비한다"는 말을 듣고 있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과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세인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어 뒷말이 적을 뿐이다. 총선 출마를 위한 장관 사퇴 시한인 1월 14일에 개인 일정이 맞춰져 있기는 모두 마찬가지라는 평가다.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美 NSA, 日내각·기업 도청

미국이 자신의 제1의 추종국가인 일본 정부와 기업까지 도청했다고 위키리크스가 지난 31일 폭로했다.

이날 위키리크스는 '타깃 도쿄'라는 게시글에서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일급비밀 도청대상 35명 중에 일본 내각과 미쓰비시와 같은 기업들이 포함됐다. 미일관계, 무역교섭, 민감한 기후변화 정책과 관련됐다"며 "도청은 적어도 최소한 1차 아베 신조 정권 시기인 2006년 9월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폭로했다.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해 노코멘트로 대응 중이다.

최근 일본은 아베 총리의 상하원 합동연설을 통해 미국 추종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미일밀월 시대 개막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일본 정부로서는 상당한 충격이 예상된다.

앞서 위키리크스는 독일, 프랑스, 브라질 정부에 대한 미국의 도청을 폭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은 미국의 견제 대상인 국가들이다. 이번 폭로는 미국의 맹방도 도청의 마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클 전망이다. 스노든 사태 이후 한국 내에서도 미국의 도청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송병형 기자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일본 도청을 풍자한 삽화. /위키리크스 홈페이지

혁신한다던 새누리당, 또 성추문 구태

경북 새누리당 국회의원
보험설계사 성폭행 혐의

새누리당 내에서 또다시 성추문이 일고 있다.

현재 경북 지역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은 40대 여성 보험설계사를 성폭행했다는 신고에 따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지난달 24일 중부경찰서에 접수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새누리당 측은 일단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2일 이장우 대변인은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에 대한 경찰 조사를 두고 "속단해서는 안 될 것 같다"며 "일단 수사 결과가 명확하게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체적 진실을 정확히 확인한 다음에 당 차원에서 얘기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 모습. 회의장 벽면 전면을 "보수는 혁신합니다"라는 문구가 장식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은 과거에도 성추행 논란 또는 부적절한 성 관련 발언으로 여러 차례 곤욕을 치른 바 있다. 멀리 가지 않더라도 최근에만 벌써 여러 차례다.

지난해 12월 11일 새누리당 소속 황은성 안성시장은 안성의 한 식당에서 서빙을 하던 종업원에게 물수건으로 성기 모양을 만든 뒤 만원짜리와 함께 건넸다. 물수건을 건네며 여러 차례 이를 만져보라고 유도하자 종업원은 결국 성추행 신고를 하기에 이르렀다.

새누리당 상임고문인 박희태 전 국회의장도 골프장 캐디를 성추행해 논란을 일으킨 전적이 있다.

박 전 국의장은 지난해 9월 11일 강원도 원주의 한 골프장에서 라운딩 도중 캐디의 몸을 함부로 수차례 만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새누리당 소속 서장원 전 포천시장은 성 파문으로 시장직을 상실하기도 했다. 서 전 시장은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여성 운동원을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선 이후 추행 사실이 드러나자 서 전 시장은 이를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 여성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건네고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 그 결과 서 전 시장은 성추행과 금품 무마 의혹을 받고 강제추행과 무고혐의로 구속됐다. 올해 1월에는 성추행·무마 혐의로 시장직을 잃었다.

연달아 발생하는 새누리당의 성추문을 두고 근본적인 대책과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정현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부대변인은 지난 1일 새누리당 영남권 의원이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데 대해 "새누리당에서 이런 종류의 사건은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지만 사안이 터질 때마다 미봉책에 그쳤으니 이런 일이 재발하는 것"이라며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윤정원 기자 garden@

재벌 잇단 막장에 ‘특별사면’ 회의론 부상

조현아 ‘구치소 청탁’ 등 도 넘는 행태 잇따라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열사흘 앞둔 2일 재벌 일가들의 도넘는 행태가 최근 연이어 벌어지면서 그동안 관행으로 이뤄졌던 기업인 특별사면이 정당하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측이 땅콩회항 사건으로 조 전 부사장이 구속됐을 때 “편의를 봐주겠다”는 브로커의 제의를 받아들여 대가를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과 연관 있는 한진그룹을 지난달 말 추가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또 조 전 부사장은 구치소에 있었던 42일 동안 일반 면회를 124차례나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루 평균 3번꼴, 주 20회에 걸쳐 일반면회가 이뤄졌던 것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 전 부사장이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까지도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자숙의 기간을 갖는 동안에 일이 터져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국민의 실망감과 증오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재벌들의 ‘옥중 혜택’은 조 전 부사장만 대상이 아니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에 유력 후보자로 거론된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 예다.

현재 수감생활 중인 최 회장은 합병기일인 지난 1일 SK C&C 흡수 합병을 완료해 바이오, 사물인터넷 등 유망 신사업 확장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대기업 총수가 ‘옥중 경영’을 통해 실질적인 경영권 행사를 한 것이다.



조현아(사진 왼쪽)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신동빈(오른쪽) 롯데그룹 회장. /연합뉴스

실제로 최 회장은 교도소에 수감된 후 17개월 동안 1778회 면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 평균 3회 이상의 면회가 이뤄진 것이다.

최근 일가 분쟁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는 롯데그룹도 도의적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신동주 전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 간의 경영권 분쟁이 친척간 ‘이전투구’로 이어지면서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다.

노영희 변호사(법무법인 천일·전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는 “보통 특별사면이 있는 시기에는 재벌들이 알아서 신중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엔 유별났다”며 “그동안 현 정부의 행보로 보아 특별사면의 큰 틀이 변경되지 않고 잠시 시끄러운 해프닝 정도로 끝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법무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뜻에 따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과 규모를 검토하고 있다.

/이홍원 기자 hong@metroseoul.co.kr

‘세월호’ 벌써 잊었나…

연안사고·사망 50% 증가

올해 상반기 연근해 인명사고와 사망자 수가 작년보다 50% 가량 증가했다.

2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연안사고 363건이 발생해 68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연안사고 247건이 발생해 46명이 숨진 것과 비교하면 각각 46%와 47% 늘은 셈이다.

연안사고는 선박사고를 제외하고 연근해와 해안에서 발생하는 인명 사고를 두루 포함한다.

연안사고 사망자가 나온 해역은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관할이 26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남해해경안전본부 18명, 중부해경안전본부(보령해경안전서 이북) 11명, 제주해경안전본부 9명 순이다.

동해해경안전본부 해역에서는 연안사고가 36건에서 62건으로 늘었지만 사망자는 8명에서 4명으로 감소했다.

사망원인은 선박에서 바다로 빠진 ‘익수’가 28명, 방파제 등 육상에서 해상으로 떨어져 숨진 ‘추락’이 21명 등으로 조사됐다.

연안사고는 수상 레포츠와 체험활동이 많은 주말에 집중됐다. 상반기 연안사고의 62%가 금~일요일에 발생했고, 사망자 59%도 주말 사흘 동안에 나왔다. 특히 올해 상반기 연안사고 26%가 토요일에 발생했다.

정부는 2013년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를 계기로 마련한 ‘연안 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을 1년 전부터 시행했다.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가 이후에는 안전처를 신설하고 해양안전을 강조했지만, 올해 상반기만 놓고 보면 연안사고를 줄이는 데 효과가 없었다.

때 이른 무더위로 연안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고 해양레저인구도 늘어 연안사고도 함께 늘어났다고 안전처는 분석했다.

그러나 연안 순찰대를 편성하지 않는 등 평소 사고 예방 인력·예산을 충분히 투입하지 못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안전처 해경안전본부는 “행락객이 많은 주말에 사고가 집중되므로 사고 집중 시간대에 충분한 안전관리 인원을 확보하고, 안전 시설물 보강을 위해 자치단체의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홍원 기자



‘토마토 속 반지를 찾아라’ 화천토마토축제 2일 강원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에서 토마토축제 메인프로그램 ‘황금반지를 찾아라’ 이벤트가 열려 행사시작에 앞서 축제 관계자가 토마토를 뿌리고 있다. /연합뉴스

‘중재’ 쉽고 빨라진다… 법무부, 중재법 개정

불공정거래 등 대상 범위 넓히고 요건 완화

법무부가 오는 4일 중재 대상의 범위를 넓히고 중재 요건을 완화하는 중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선진국에서 이미 활발하게 이용되는 중재 제도가 국내에서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중재는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으면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인의 판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다. 중재판정은 당사자들에게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부동산·대여금·보험·보증·인테리어 등 일상생활에서 겪는 분쟁을 저렴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재 대상이 되는 분쟁의 범위가 ‘사법상의 분쟁’에서 ‘재산권상의 분쟁 및 당사자의 화해로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독점금지법 위반 등 불공정거래행위와 특허권 등 지적소유권의 효력에 관한 분쟁도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자는 당사자 간 합의도 엄격한 요건을 따지는 문서가 아닌 이메일로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모델중재법 내용을 반영해 가압류·가처분과 같은 ‘임시적 처분’의 정의와 요건,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중재판정부가 내린 임시적 처분을 법원이 집행할 수 있게 해 신속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지금까지는 당사자가 법원에 별도의 보전 처분을 신청해야 했다.

중재판정의 집행도 ‘판결’이 아닌 ‘결정’ 절차를 통해 별도의 변론 과정 없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경우 중재판정부가 직접 증인·증거 조사도 할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관행적으로 요구하던 서류 보관·제출 의무 등 불필요한 절차가 사라진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대법원장의 중재 규칙 승인권을 폐지해 중재 기구가 자유롭게 규칙을 정하는 규정도 마련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중재법 개정은 1999년 이후 처음이다.

법무부는 중재법 개정으로 국내 중재 사건은 물론 국제 중재 사건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서 이뤄지는 국제 중재 사건 유치 건수는 연간 70건 정도다. 이를 싱가포르 수준인 연간 230여건으로 올릴 경우 매년 6000억원 상당의 경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유선준 기자 rsunjun@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 궁 호
사장·편집인	김 종 학
편 집 국 장	강 세 준
광 고 문 의	02)721-9851,3
독 자 센 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로또복권 제661회

1등 당첨번호						2등보너스숫자
2	3	12	20	27	38	40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원)
1등	6개 숫자 일치	1,713,025,547
2등	5개 숫자 + 2등 보너스 숫자	36,254,509
3등	5개 숫자 일치	1,248,107
4등	4개 숫자 일치	50,000
5등	3개 숫자 일치	5,000

신동빈, 롯데홀딩스 주총 이겨도 '도루묵'

호텔롯데 지분 72%보유 'L투자' 신격호 장악
쇼핑·제과 등도 지분율 낮아 이사직 유지 난망



신격호 신동빈 신동주 롯데 주요계열사 직함 및 지분

	신격호	신동빈	신동주	기타
호텔롯데	▲총괄회장, 등기임원, 상근, 대표이사 ▲롯데홀딩스 19.07%, 광윤사 5.45% ▲L투자회사 72.65% 신격호 대표이사(49.45%) L9 10.41%, L7 9.40%, L1 8.60%, L8 5.76%, L10 4.44%, L12 4.20%, L11 3.32%,L2 3.32%, 츠쿠다 다카유키 대표이사 (23.20%) L4 15.63%, L6 3.97%, L5 3.60%	▲회장, 등기임원, 비상근	▲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신영자 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롯데쇼핑	▲총괄회장, 등기임원, 상근, 대표이사, 0.93% ▲호텔롯데 8.83%	▲회장, 등기임원, 상근, 사내이사, 13.46%	▲직함 없음 13.45%	▲신영자 사내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0.74%
롯데제과	▲총괄회장, 등기임원, 상근, 사내이사, 6.86% ▲롯데알미늄 15.29%, 롯데장학재단 8.69%, 호텔롯데 3.21%	▲회장, 등기임원, 상근, 대표이사, 5.34%	▲직함없음 3.95%	▲신영자 2.52%

신동빈(60·사진) 롯데그룹 회장이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승리한다고 해도 한국롯데는 가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일 롯데 '형제의 난' 사태를 종합 분석해보면 롯데홀딩스 이사회는 동생에게 기울어 있지만, 주주총회 지분은 형에게 유리하다. 신 회장은 한국롯데 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의 지분이 전무할 뿐 아니라 한국롯데에서 롯데홀딩스가 갖는 지분 자체도 약하다.

롯데홀딩스 주총 승리도 확신할 수 없는 상태다. 아버지인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신동주(61) 롯데홀딩스 전 부회장의 손을 들어주며 지분 싸움에서 밀리는 양상이다.

여기에 창업주인 신 총괄회장이 신동빈 회장을 직위 해제하고, 형인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을 롯데그룹의 회장으로 임명한다는 지시서와 임명장도 공개되며 후계자 명분도 사라진 상태다.

계열사 지분도 약한 신 회장이 한국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최대주주(13.46%)로 있는 롯데쇼핑 정도로 보인다.

◆ 호텔롯데 실질적 주인, 신격호의 'L투자회사'

한국롯데를 지배하는 것은 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다. 호텔롯데는 롯데상사·롯데케미칼·롯데물산·롯데건설·롯데쇼핑·롯데제과·롯데칠성음료·롯데캐패탈·대홍기획 등의 대주주 또는 최대주주이다.

현재 호텔롯데의 단일 최대주주는 19.07%의 지분을 가진 롯데홀딩스지만 실질적인 주인은 총 72.65%를 가진 'L투자회사'다. 나머지 지분은 광윤사가 5.45% 등을 갖고 있다.

총 12개로 나뉘어진 L투자회사 중 9곳(L1·2·3·7·8·9·10·11·12)의 대표이사는 신 총괄회장이다. 이들 9곳이 가진 호텔롯데의 지분은 49.45%다. 여기에 신 총괄회장의 대표자산관리회사로 알려진 광윤사의 지분 5.45%를 더하면 신 총괄회장이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만일 신 회장이 이달 예정된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패배하면 롯데홀딩스의 호텔롯데 지분 19.07%까지 신 총괄회장에게 합류된다. 신 총괄회장이 73.97%의 지분을 갖게 된다.

상법에 의해 임기 중 이사의 해임은 주총에서 출석주주 3분의 2의 동의에 따라 정해진다. 임기만료시엔 과반수 동의로 정해진다.

신 회장의 롯데홀딩스 주총 패배는 곧 바로 호텔롯데 이사의 사퇴로 이어지게 된다. 신 회장이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승리하면 호텔롯데 임시주총에서는 경영권 방어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임기 만료일인 2017년 정기 주총에서는 결국 해임된다.

롯데홀딩스 지분을 모두 신 회장 편으로 끌어 들여도 임기 중 해임만 막을 수 있다. 신 회장의 호텔롯데 대표이사 임기 만료는 2017년 2월 18일이다.

12개의 L투자회사중 신 총괄회장이 맡지 않은 3곳(L4·5·6)의 대표는 신 회장의 우군으로 알려진 츠쿠다 다카유키 롯데홀딩스 대표이사다. 호텔롯데 지분의 23.20%를 갖고 있으며 롯데홀딩스 지분과 합해도 42.27%로 과반수에 미치지 못한다.

신 회장이 최대주주(13.46%)로 있는 계열사 롯데쇼핑도 불안하다. 신회장의 지분은 신 전 부회장(13.45%)과 0.01%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가 8.83%를 갖고 있다. 나머지 지분은 장녀 신영자(0.74%), 셋째부인 서미경(0.10%), 막내딸 신유미(0.09%) 외 소액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다.

이 외 롯데계열사의 지분은 ▲롯데제과 신동빈 5.34%, 신동주 3.95% ▲롯데칠성음료 신동빈 9.24%, 신동주 4.83% ▲롯데건설 신동빈 0.59%, 신동주 0.57% 등으로 두 형제가 비슷한 수준이다. 결국 아버지 신 총괄회장이 손을 들어주는 자가 승자가 된다.

◆ 신동빈, 주총 승리도 미지수… 후계자 '명분'도 부족.

신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 주총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29일 신 전 부회장은 일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의결권은 2%에 못 미치지만 아버지의 대표자산관리회사인 광윤사의 지분 33%와 우리사주회의 지분을 합하면 3분의 2가 된다고 밝혔다.

신 총괄회장의 롯데홀딩스 지분 28%와 신 전 부회장의 지분 20%(추정)를 합하면 이미 과반수에 가깝다. 지주인 광윤사의 지분 27.65%를 합하면 신 전 부회장은 70%에 육박하는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또한 신 총괄회장의 둘째부인이자 신동주·신동빈 형제의 어머니인 시게미츠 하츠코(88)씨가 의결권을 갖고 있다면 신 전 부회장의 입지는 더욱 견고해진다. 신 회장이 가진 롯데홀딩스 지분은 이사회와 나머지주주들을 모두 설득한다 해도 자신의 지분 20%(추정)를 더해 3분의 1 수준이다.

또한 신 회장은 아버지 신 총괄회장의 지지가 없어 후계자 명분 또한 약하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달 30일 신 총괄회장의 친필 서명이 있는 해임지시서에 이어 31일 신 총괄회장이 해임을 지시한 육성이 담긴 녹취파일까지 공개했다.

이로써 그동안 롯데그룹이 주장한 신 총괄회장의 판단력 부재 주장은 근거를 잃어가고 있다.

◆ 관습법적 신 총괄 회장 지시서가 '무효'?

그 동안 신 총괄회장이 고령으로 제 정신이 아님을 주장했던 롯데그룹은 각종 증거들이 등장하자 급격히 법률 문제로 화제를 돌리는 모습이다. 신 총괄회장이 상법 상 절차를 무시하고 이사를 일반적으로 해임한 것은 위법이며 무효라는 주장이다.

롯데 관계자에 따르면 롯데의 창립 이후 주요 임원의 선임·해임은 신 총괄회장의 구두로 이루어졌으며 직원들은 이를 인식하고 따라왔다. 또 해임지시서를 통해 이사를 해임한 사례도 존재한다. 신 총괄회장의 지시서는 이미 사내에서는 하나의 관습법적 효력을 갖고 있다.

민법 제106조에는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고 명시돼 있다. 상법 제 1조 1항에는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고 돼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미국과 달리 상법의 부재 시에만 관습법을 인정하지만 이러한 전통이 이미 롯데의 문화로 자리 잡았고 직원들이 수 십 년간 이를 인식하고 따라온 정황을 보면 이번에만 유독 '불법'을 이유로 신 총괄회장에게 반발할 이유는 없다. 만일 '불법'을 근거로 신 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해임을 무효화 시킨다면 그 동안 모든 임원의 선임·해임이 공소시효 범위 내에서 무효가 되는 것이다.

신 회장은 2일 오후 현재까지 일본에 머물며 이사회와 주주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재계 관계자는 "아버지와 가족에게 반하는 이번 싸움에서 신 회장은 이사회와 주주들을 설득하기 위해 파격적인 조건을 걸었을 것"이라며 "한국 롯데는 본인이, 일본 롯데에 대한 경영권은 츠쿠다 다카유키 이하 이사회에 넘기는 조건을 제시했다는 설도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6·15면

/김성현 기자 minus@metroseoul.co.kr

신격호 "아버지 배제, 용서할 수 없다"

신격호, 대국민 사과영상
"동빈 회장 임명한 적 없어"
신동주 "주총 승리 확신"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총괄회장은 2일 장남인 신동주(61)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을 통해 공개한 KBS 영상에서 이렇게 말하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한국 롯데 회장과 롯데홀딩스 대표로 임명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신동빈 회장에게는 어떠한 권한이나 명분도 없다"며 "70년간 롯데그룹을 키워온 아버지인 자신을 배제하려는 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서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 총괄회장은 이어 "신동빈 회장의 눈과 귀를 멀게 한 참모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 전 부회장은 이에 앞서 조만간 열릴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자신이 유리한 고지에 서 있다며 주총 표 대결서 승리하면 신격호 대표이사를 복직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동빈 회장 귀국 언제쯤? 2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입국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3일 귀국할 것이란 소문도 있지만 정확한 귀국 일정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신 전 부회장은 이날 SBS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 중에 광윤사와 우리 사주의 우호지분을 합하면 절반을 넘는다"며 "우리사주의 찬성이 있으면 지금의 이사진을 모두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신 전 부회장은 그러면서 "주총에서 승리할 경우 자신을 따르다가 해임된 이사진과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을 대표이사직에 돌려놓겠다"고 했다. 또 " 3일 롯데홀딩스 우호 지분 확보를 위해 일본으로 출국, 광윤사 등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달 신격호 총괄회장이 중국 사업 조 단위 손실과 관련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화내고 변상을 요구한 사실도 이날 털어놨다.

이 과정에서 "신 총괄회장에게 맞은 신동빈 회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신 전 부회장 측에서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신동빈 회장이 이를 거부하고 마지막까지 철저히 싸울 것을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신 전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의 다툼은 경영 방식 차이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신동빈 회장이 모든 것을 빼앗아 자기 것으로 하려던 것이 원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가신들의 개입도 본격화됐다.

롯데그룹(회장 신동빈)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장녀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사진)과 5촌 조카인 신동인 롯데자이언츠 구단주 직무대행이 '중립'이 아니라, 신동주 전 부회장의 편에 서 있다고 주장했다.

롯데그룹 핵심 관계자는 "(신영자와 신동인) 그 사람들이 다 조종하고 있고, 신 이사장이 롯데호텔 34층을 점령해 온갖 소리를 양산하고 있다"면서 "롯데그룹이 위기상황이 되면 덕 볼 사람이 누구겠느냐. 결국 그 사람들의 목표는 롯데그룹에서 한 몫 떼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신동주 전 부회장 편에 선 신선호 일본 산사스 사장에 대해서도 "그분은 신 총괄회장에게 한이 있는 사람"이라며 "롯데가 망가져도 제일 기분 좋은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신 총괄회장의 한국롯데 임원 해임 지시안으로 알려진 이른바 '살생부'에 이인원 부회장과 황각규 사장 등이 포함된 데 대해서는 "저쪽(신 전 부회장 측)에서 (그런 내용을) 흘려서 이쪽(신 회장 측)에 힘빼기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날의 롯데를 이렇게 만든 것은 신 총괄회장의 지침도 있었지만 지난 10년간 실제로 실행하고 몸 바쳐 한 것은 신 전 회장, 신 이사장도 아닌 신 회장"이라며 신 회장의 경영권 승계 정당성을 강조했다.

/박상길 기자 sweatsk@metroseoul.co.kr

롯데 父子전쟁 일지

▲7월 15일
-신동빈 회장,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 선임.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한일 롯데 통합 경영 선포

▲7월 27일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전 부회장 포함 5명의 가족들과 일본 롯데홀딩스 방문. 신동빈 회장 등 6명의 이사 해임.

▲7월 28일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부회장이 주도한 해임으로 불법해임이라 주장. 롯데홀딩스 긴급 이사회를 개최, 신격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회장 해임 후 명예회장으로 선임.
-신격호 총괄회장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귀국.

▲7월 29일
신동주 전 부회장 한국 입국. 입국 시 롯데뱃지 달고 등장.



▲7월 30일
-신동주 전 부회장, 일본경제신문을 통해 롯데홀딩스 임시주주총회 개최 선언. 안건은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 건이며 승리 확신.
-신격호 총괄회장 둘째부인 시게미츠 하츠코 입국.
-신동주, KBS통해 신격호 총괄회장 서명 들어간 '신동빈 해임지시서' 공개

▲7월 31일
-신격호 총괄회장의 동생 신선호 일본 산사스 사장 입국. 신선호 사장, "신격호, 신동주를 후계자로 생각" 등 발언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 판단 흐려진 상태", "신동빈 회장 우호지분 70% 육박" 주장.
-신격호 총괄회장의 부친 제사. 신씨 일가 가족회의 개최.
-신동주, "신동주가 한국롯데 회장" 신격호 직인찍힌 문서, 신격호 녹취록 KBS통해 2차 공개

▲8월1일
-시게미츠 하츠코 출국.

▲8월 2일
-신동빈 회장 측, "신영자, 신동인 중립 아니다. 한 몫 떼가려는 것", "법적 승리 자신" 발언.
-신동주 전 부회장, "7월초 아버지가 동생 때렸다", "이달초 신동빈 만나 타협시도", "신동빈 마지막까지 싸우겠다 선언" 발언.
-신격호 대국민 사과 "신동빈 임명한 적 없어"

뜨는 OLED… 삼성·LG디스플레이 '군침'

글로벌시장 역성장 전망
양사 생산라인 강화 잇따라

액정표시장치(LCD) 패널 시장이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가 플렉서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2일 시장조사기관 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 LCD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글로벌 평면 패널 디스플레이(FPD) 시장의 올해 매출은 1290억 달러로 지난해 1314억 달러 대비 2%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달리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시장은 올해 큰 폭으로 성장하면서 향후 패널 시장의 대세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 매출은 전년 대비 36% 증가한 118억 달러, 수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PMOLED) 시장은 22% 늘어난 4억5000만 달러 규모로 예측됐다.

디스플레이서치는 "AMOLED 시장 확대는 OLED TV와 스마트폰의 성장, 태블릿과 애플워치와 같은 웨어러블 기기의 OLED 탑재가 늘어나는데 따른 것"이라며 "특히 높은 판매가격 등으로 플렉서블 OLED가 AMOLED 시장을 주도하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는 향후 플렉서블을 중심으로 OLED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에 나설 계획이다. 최근 중국업체들이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LCD 생산량을 확대하면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이 시장에 머물러서는 미래가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삼성디스플레이의 플렉서블 OLED. /삼성디스플레이 제공

정부가 하반기 OLED 생산 설비 기자재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 한시적으로 세율을 낮춰주기로 한 점도 기업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요인 중 하나다.

삼성디스플레이는 플렉서블 OLED 생산라인 확대를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 4월 플렉서블 OLED 전용 라인인 6세대(1500㎜×1850㎜) A3 라인의 1단계 가동을 시작했다. 기존 5.5세대 A2(1300㎜×1500㎜) 라인의 일부를 플렉서블 OLED 장비로 전환하는 투자도 계속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A2와 A3라인을 포함해 현재 월 3만9000장(원장기준) 수준인 플렉서블 OLED 생산능력을 오는 4분기 5만1000장, 내년 1분기 6만3000장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상반기에 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한 삼성디스플레이는 하반기에도 플렉서블 OLED를 중심으로 2조원 이상을 투자해 생산시설 확충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LG디스플레이는 기존 TV용 OLED 패널 외에 모바일과 중소형 OLED 패널에 대한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달 22일 이사회를 열고 구미공장 내 6세대 플렉서블 OLED 신규라인(E5) 건설에 1조500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월 7500장 생산규모(원장기판 투입기준)의 6세대(1500㎜×1850㎜) 규격으로 2017년 상반기 중 양산에 들어간다. 구미 공장은 주로 폴더블과 스마트폰, 자동차용 디스플레이 등 중소형 디스플레이 제품을 만들 계획이다. /조한진 기자 hjc@

kenny story

계약금 980만원 투자 후, 잔금 918만원 내면 '끝!'

축 GRAND OPEN 축

임대보증금

447만원

715만원

1년 수익금 선지급

실 투자금 1,898만원이면 통장으로 매 월 60만원 씩!!

3채 5,700만원!
(매월 180만원 지급)

10년 임대차 계약서 발행

Hotel Kenny Story
Seogwipocity
임대차 계약서

- 케니스토리 호텔 계약서 샘플



분양 중인 호텔 대비 **최대 1억원 저렴!**

상기 이미지는 건축법 변경으로 인한(사선제한폐지) 설계변경을 적용한 것이며, 추후 인허가 과정에서 설계변경 될 경우 사전에 통지하도록하겠습니다.

예금 1% 초저금리시대 고수익 분양형 호텔이 정답

분양가	8,945만원
보증금	**447만원**
실투자금	**1,898만원**
중도금대출	5,883만원
대출이자	205만원
연수익	715만원
연순수익	509만원
월순수익	42만원
수익률	**26.8%**

위 수익률표는 실투자금 대비 수익률이며 중도금 무이자 50%대출, 잔금대출 10%(개인신용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시 수익률입니다.

연 7일 무료숙박

수익률 26%

가동률 90% 예상

지가상승 1위 서귀포 최고입지

1년 수익금 715만원 선지급

- 수익금 선지급은 개인 선택 사항, 금액은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계약자 선착순 정관장 홍삼세트 증정

방문시 선착순 사은품 증정



모델하우스 서울시 종로구 종로4가 10번지 (종로 5가역 12번출구, 광장시장 건너편)

신청금 100만원 선착순 호실 배정

예금주 : 한국자산신탁(주)
입금계좌 : 351-0776-2742-43(농협)
미 계약시 전액 환불 됩니다.

문의전화 **02)304-5511**

호텔개요 · **대지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270-9 외 4필지 · **용도** : 숙박시설 근린 상업시설 · **건축규모** : 지하2층 ~ 지상10층 · 객실수 : 305실

시행사 비디파트너스 | 운영사 벨류버츄어서클 | 시공사 석장건설 | 자금관리 KAIT 한국자산신탁

삼성물산, 주식매수청구권 회오리속으로

제일모직 자사주매입·삼성전자 배당 등 효과 '제로'

삼성물산 주가는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된 이후 하락 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주가 하락 방어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전자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지만 효과는 미미한 상황. 주식매수청구권 기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31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물산 주가는 전 일 대비 0.89%(500원) 오른 5만6600원에 거래를 마치며 소폭 반등했다. 전날 장중 한때 5만5300원까지 떨어지다 가까스로 5만6000원선을 지켜낸 것에 비하면 값진 성과다. 삼성전자의 주주배당 정책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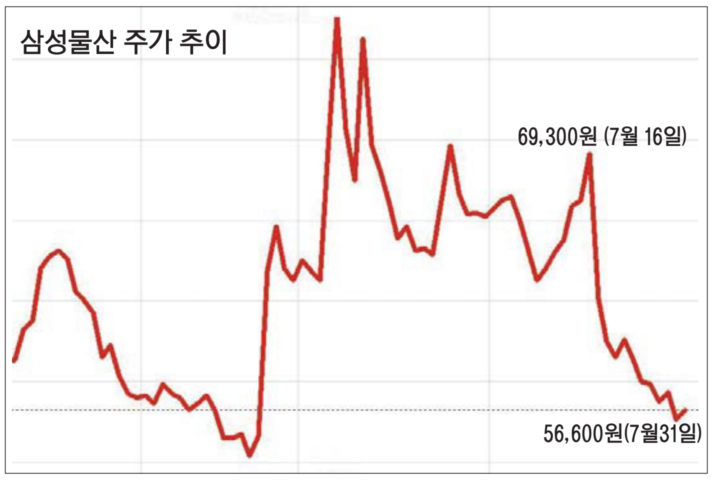
그러나 앞서 제일모직이 자사주매입 정책을 발표한 이후 삼성물산 주가가 깜짝 반등세를 보이다가 이내 하락세로 돌아선 경험에 비춰 아직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 제일모직·삼성전자 "주가 지켜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가는 지난 17일 주총 이후 현재까지 각각 18.32%, 13.65% 역주행 했다.

제일모직은 주가안정화 방안으로 오는 10월23일까지 4400억원 규모의 자사 보통주 250만주를 매입하는 방안을 내놨다. 그럼에도 공시 다음날인 24일 제일모직은 장 초반 1%대 강세를 보이다 이내 하락세로 돌아섰다. 삼성물산 주가도 장 초반 강보합세에서 하락 반전했다. 제일모직 자사주매입 발표 이후 지난달 31일까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가는 각각 4.23%, 2.89% 떨어졌다.

제일모직의 주가 하락 방어가 실패로 돌아간 이후에는 삼성전자 주주친화 정책이 통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물산 주가 추이

이런 가운데 지난 30일에는 삼성전자가 중간배당을 500원에서 1000원으로 확대하는 주주친화 정책을 들고 나왔다. 시가배당률은 보통주 0.08%, 우선주 0.10%로, 배당 예정일은 오는 28일이다.

◆ 외인 잡기·주매권 청구 '관건'

삼성전자가 중간배당을 늘린 이유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논의 과정에서 등 돌린 외국인투자자와 소액주주를 의식한 탓으로 풀이되고 있다. 합병에 반대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과 소액주주들이 합병 비율에 이의를 제기하고 적정 수준의 주주환원을 요구한 것 등이 부담이 된 것이다.

실제 합병 주총이 열리기 이틀 전인 지난 15일부터 현재까지 외국인이 팔아치운 삼성물산 주식은 2864억8800억원에 이른다. 제일모직도 합병 통과 하루 전부터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져 지난달 31일까지 총 1114억7400만원 어치가 빠져나가며 외국인 '반감'이 그대로 반영했다.

삼성물산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인 5만7234원을 하회함에 따라 오는 6일까지 얼마나 많은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를 할 것인지가 최대 관심사다.

HTS를 이용하는 일반투자자들은 5일 오후 2시까지 행사할 수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액이 두 회사를 합쳐 1조5000억원 이상이면 합병이 취소될 수 있다.

주주 비중이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은 가운데 주총에서 합병 반대에 손을 든 25.82%의 주식 모두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비용은 2조3083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김보배 기자 bobae@metroseoul.co.kr

주간 경제지표 일정

일정	국가	기준월	지표	예상치	이전치
3일	한국	6월	경상수지		$8653.2M
	중국	6월	Calxin 제조업 PMI(확정)	48.4	48.2
	유로존	7월	Markit 제조업 PMI(확정)	52.2	52.2
	미국	6월	개인소득	0.30%	0.50%
	미국	6월	개인소비지출	0.20%	0.90%
	미국	6월	개인소비지출물가(MoM)	0.20%	0.30%
	미국	6월	ISM 제조업지수	53.5	53.5
4일	한국	7월	소비자물가지수(YoY)	0.70%	0.70%
	유로존	6월	생산자물가지수(YoY)	−2.30%	−2.00%
	미국	6월	제조업수주(MoM)	1.70%	−1.00%
5일	중국	7월	Calxin 서비스 PMI	53.7	53.7
	중국	7월	Calxin 합성 PMI	53.8	53.8
	유로존	6월	소매판매(YoY)		2.40%
	미국	7월	ADP 취업지수 증감	210K	237K
	미국	7월	ISM 비제조업지수	56.3	56
6일	일본	6월	선행지수		106.2
	일본	6월	동행지수		109
7일	미국	7월	비농업부문 일자리 수 증감	225K	223K
	미국	7월	시간당 평균임금(MoM)	0.20%	0.00%
	미국	7월	실업률		10.50%
	일본		BOJ 금융정책결정회의		
8일	중국	7월	수출(YoY)		2.80%
	중국	7월	수입(YoY)		−6.10%
	중국	7월	무역수지		$46.54B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제공

금감원 Q&A 대리운전 사고 보험금 지급 유의사항은?

탁상·주차는 특약… 미리 가입여부 확인해야

Q. 저녁에 회식을 하고 나서 가끔 대리운전을 이용하곤 하는데, 대리운전 중 사고가 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매일 47만명이 이용할 정도로 대리운전 이용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대리운전 관련 보험가입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무보험 대리운전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리운전 형태에 따라 대리운전 중 사고를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대리운전 업체가 가입하는 대리운전보험에서는 의뢰인이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동승하면서 운전 대행을 요청하는 '통상의 대리운전' 중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해 보상을 하고, 통상의 대리운전이 아닌 차량만을 이동하는 '탁상'이나 '대리주차' 중 발생한 손해는 특약에 추가 가입하지 않는 한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차량의 이동만을 요청하는 대리운전의 경우에는 미리 대리운전업체에 그 사실을 명확히 알려야만 대리운전업체에서 탁송보험에 추가 가입된 대리운전기사를 보내게 되고 사고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대리운전 이용시 등록된 대리운전업체를 통해서 요청해야 사고발생 시 보다 원활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등록된 대리운전업체를 통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마주친 대리운전기사 등에게 직접 요청한 경우 '통상의 대리운전'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정리=김민지 기자

증시 하락에 주식형펀드 수익률 '마이너스'

국내 증시가 기업들의 실적 부진 여파로 고전하면서 주식형 펀드도 한 주간 마이너스 수익률을 나타냈다.

2일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공시된 기준가격 기준으로 국내 주식형펀드의 가치는 한 주간 2.87% 줄었다.

코스피 중소형주와 코스닥이 강하게 조정을 받은 탓에 중소형주펀드의 수익률이 −6.41%로 가장 저조했다. 일반주식펀드와 K200인덱스펀드의 수익률도 각각 −3.52%, −1.48%로 부진했다.

순자산액 100억원 이상, 운용기간 1개월 이상인 국내 주식펀드 1741개 중 28개를 제외한 나머지 펀드가 한 주간 손실을 냈다.

코스피 수익률을 웃돈 펀드는 559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와 은행 관련 펀드들이 양호한 수익률을 올렸으나, 헬스케어 관련 펀드들은 부진한 성과를 냈다.

국내 채권형펀드의 성과도 전반적으로 부진했다. 중기채권펀드가 −0.05%의 수익률로 채권형 중 가장 부진한 성적을 냈고, 우량채권펀드도 마이너스 성과를 기록했다.

해외주식펀드도 중국 증시 폭락에 직격탄을 맞아 한 주간 −4.90%의 수익률을 보였다. 소유형 기준으로 중국주식펀드가 한 주간 8.15%의 손실을 내 가장 부진했다.

/김민지 기자

갤럭시 S6 부진… 삼성전자·SDI 주가 동반추락

2분기 실적 예상치 크게 하회
연중 신저가 갱신 등 맥 못춰
목표주가 하향조정 잇따라

삼성전자 휴대전화 갤럭시S6 판매 부진으로 삼성전자와 배터리 공급을 담당하는 삼성SDI가 함께 추락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삼성SDI 모두 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자 주가도 52주 신저가 또는 연중 신저가를 갱신하는 등 맥을 못추고있다. 금융투자전문가들은 양사의 하반기 실적도 어두울 전망이라며 목표주가를 줄줄이 하향 조정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SDI는 전 거래일 대비 9.3%(8800원) 내린 8만58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8만5700원까지 떨어지며 52주 신저가를 다시 썼다.

삼성전자도 부진한 실적 소식이 전해진 다음날인 지난달 31일 전일 대비 2.47%(3만원) 내린 117만5000원을 기록하며 연저점을 찍었다. 갤럭시S6 기대감에 지난 3월18일 종가기준 150만3000원까지 치솟은 이후 21.82%나 폭락했다.

◆ 하반기 삼성전자, 삼성SDI 동반 '암울'

전문가들은 삼성SDI 실적이 하반기에도 부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삼성SDI의 주요 고객사인 삼성전자의 기대치를 하회하는 갤럭시S6 판매량이 곧바로 삼성SDI의 소형 전지부문 매출 악화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김동원 현대증권 연구원은 "37억원에 달하는 삼성SDI의 영업손실은 시장 예상치인 160억원에서 큰 폭 하회한다"며 "이는 케미칼, 전자재료의 양호한 수익성에도 불구하고 폴리머 전지의 가격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2분기 갤럭시S6 판매 부진으로 소형 2차전지부문이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보배 기자

은행권, 하반기 고객잡기 더 치열해진다

평생고객부 신설·수수료 면제혜택 등 계좌이동제·인터넷전문銀 대응 나서



시중은행들이 주거래 고객을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계좌이동제 시행과 인터넷전문은행 출현예고 등 치열해지는 금융사 간 경쟁에서 금리와 수수료 혜택을 높여 고객이탈을 방지하는 한편 계열사 간 시너지를 확대해 신규 고객을 유치하겠다는 복안이다.

◆ 계좌이동제 대비, 주거래 고객 혜택 강화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 은행들은 최근 별도의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주거래 고객 특화 상품을 출시하는 한편 수수료 면제 등 각종 우대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계좌이동제'란 고객이 은행 주거래계좌를 타은행으로 옮길 시 기존계좌에 연결된 급여이체나 공과금 등 자동이체 내역들을 별도의 신청 없이 이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분산된 자동이체서비스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인프라를 내놓는 등 단계적인 계좌이동제를 시행하고 있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원하는 계좌로 편하게 갈아탈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집토끼(기존 고객)를 지키는 동시에 산토끼(신규고객)도 뺏어와야 하는 두가지 임무가 떨어진 셈이다.

IBK기업은행은 지난달 30일 은행과 20년 이상 거래해온 개인고객을 'IBK평생고객'으로 선정했다.

앞서 기업은행은 올해 '평생고객부'를 신설했으며 '희망을 키우는 평생은행'이라는 광고슬로건을 내세우는 등 고객의 평생고객화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선정된 평생고객은 영업점의 추천을 받아 결정됐으며 이들에게는 감사패와 순금메달, 여행 상품권, 수수료 평생 면제 혜택이 주어졌다.

◆ 금융지주 자회사간 패키지 상품 출시…"시너지 강화"

금융 자회사 간 시너지를 높인 패키지 상품도 있다.

KB국민은행은 최근 통장과 카드, 적금, 대출 등으로 구성된 'KB국민ONE라이프 컬렉션'을 출시했다.

이는 계좌이동제를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KB국민ONE통장'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수수료 면제 기준과 혜택을 확대했다.

매월 이 통장에서 공과금 이체나 KB카드(신용·체크) 결제실적이 1건 이상 있는 경우 전자금융타행이체수수료 등 수수료가 무제한 면제한다.

'KB국민ONE카드' 고객은 국내 모든 가맹점에서 카드를 사용할 경우 0.7%를 기본 적립받을 수 있다.

적금은 연1.5% 기본 금리에 'KB국민ONE통장' 보유 시 연0.2%p, KB스타뱅킹(인터넷뱅킹)을 통해 가입할 경우 연0.2%p를 각각 우대해 최고 연1.9%의 이율을 제공한다.

◆ 하반기 주요전략에 '계좌이동제 대응' 꼽아

신한은행은 계좌이동서비스에 대비해 '신한 주거래 우대 통장·적금 패키지'를 판매 중이다.

이는 주거래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강화한 자유 입출금 통장으로 급여이체 뿐만 아니라 카드결제나 공과금 자동이체 고객에게도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들이 신한은행을 간편하고 쉽게 주거래은행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과 혜택을 강화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계좌이동제는 은행의 하반기 영업 전략의 주요변수로 떠올라 각 은행이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우리은행은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임직원 1600여 명과 '2015년 하반기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계좌이동제 대응'과 '찾아가는 영업' 강화 등을 하반기 영업 목표로 내놨다.

하나금융 그룹 또한 지난달 10일 '2015 마케팅영웅-영업의 新' 행사를 열고 하반기 영업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하나·외환은행은 하반기 계좌이동제 시행으로 저비용예금의 지각변동과 고객유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협력과 혁신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다짐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기사제보=02)721-9832



하나생명은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언주로에 있는 하나은행과 하나대투증권의 복합점포에서 입점식을 개최했다. 이날 (왼쪽부터)장승철 하나대투증권 사장, 김한조 외환은행장,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 김병호 하나은행장, 김인환 하나생명 사장이 강남구에 위치한 하나금융그룹 복합점포 입점식에 참석해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하나생명 제공

하나생명, 은행·증권·보험 한 곳에서 판매

'복합점포' 영업 시작

하나생명이 그룹 시너지를 강화하고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원스톱(One-stop) 금융서비스를 시작한다.

하나생명은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언주로에 있는 하나은행과 하나대투증권의 복합점포에서 입점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로써 소비자는 한 점포에서 은행, 증권은 물론 보험사를 포함한 모든 금융상품의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하나생명은 복합점포 내 별도공간에 본사 직원을 파견하고 방카슈랑스 채널에서 판매할 수 없는 (무)건강한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을 판매한다.

이 상품은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가 없어 일반 종신보험보다 저렴하고, 다양한 특약과 함께 연금전환 기능을 갖춰 노후자금으로 활용하기에도 유용한 상품이다.

한편 하나생명은 하나은행, 하나대투증권과 함께 고객자산관리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복합점포 취지를 살려 원스톱 금융서비스를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입점식에 참석한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이제 막 첫발을 내디딘 복합점포가 은행, 증권, 보험을 망라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한 단계 높은 수준의 고객자산관리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최적의 상품을 제공하는 완전판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내부통제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하나생명은 이번 복합점포를 일정기간 동안 운영한 후 타 복합점포 입점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보배 기자

'개인신용정보' 얼마나 안전한가

금융당국 실태 점검 실시

금융감독원은 3일부터 시중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권 개인신용정보보호 실태 점검에 들어간다.

금감원은 지난해 카드3사의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고 이후 새롭게 도입돼 다음달 시행 예정인 정보보호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이에 앞서 금융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3월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마련, 오는 9월1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신규 도입되는 금융권 개인신용정보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위원회·금융협회 등과 T/F팀을 구성해 제도를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다.

이번 실태 점검 대상은 은행 18개, 보험 30개, 증권 25개, 카드사 8개, 중앙회 4개, 저축은행 5개, 전자금융업자 10개 등 100개 금융사다. 오는 3일부터 28일까지 4주에 걸쳐 서면점검을 실시, 미흡사항이 발견된 금융사는 현장점검을 받게 된다.

금감원은 신용정보 관리와 보호인 선임 현황, 비대면 영업 통제와 신용정보 사고 대응 체계 등 '내부통제 운영 현황'과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오·남용 통제와 파기·보유기간 관리 현황 등 '업무 단계별 절차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손해배상책임 준비 현황과 개인신용정보 누설 등 사고 발생 시 통지 절차 마련 여부 등도 살핀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규 시행 전 금융회사가 개인신용정보 보호현황을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미흡사항을 보완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법규 위반 소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나아가 금융권의 개인신용정보 보호 수준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보배 기자 bobae@



국내건설사, 해외수주 '물꼬' 트이나

현대·대우 등 5곳 53억불 정유공사 수주
이란 제재 해제로 하반기 전망도 밝아

국내 건설사 5곳이 쿠웨이트 대형 정유공사를 수주하는 등 최근 중동에서 낭보가 이어지고 있다. 해외수주에 어려움을 겪은 건설사가 '턴어라운드'에 성공할 지 주목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대우·한화·SK건설과 현대중공업은 쿠웨이트 국영 석유회사(KNPC)로부터 알 주르 신규 정유공사(NRP) 사업에 대한 낙찰통지서(LOA)를 받았다고 지난달 31일 공시했다.

KNPC가 발주한 이 사업은 쿠웨이트 남부 알주르 지역에 일일 생산량 61만5000배럴 규모의 저유황 연료유 생산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총 공사비 140억 달러(1~5패키지)는 올해 발주 프로젝트 중 최대 규모다. 이중 국내업체의 수주액은 53억1400만 달러다.

1번패키지(사업비 42억2400만 달러)에서는 한화건설이 스페인 테크니카스, 중국 시노펙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수주했다. 이중 한화건설의 지분은 10%인 4억2400만 달러 규모다. 2번과 3번(57억6000만 달러)은 대우건설과 현대중공업, 미국의 엔지니어링 업체 플루어가 구성한 컨소시엄이 수주했다. 이 중 대우건설과 현대중공업은 각각 19억2000만 달러를 수주했다.

정유공장의 석유화학제품 수출용 해상 출하 시설을 건설하는 5번 패키지(15억 달러)에서는 현대건설(6억 달러)과 SK건설(4억5000만 달러)이 낙찰받았다.

지난달 28일에는 삼성물산이 카타르 수전력공사가 발주한 카타르 퍼실리티 D(Facility D IWPP)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이 프로젝트는 카타르 도하 남쪽 15km지점에 복합발전소와 하루 평균 1억3000만갤런(4억9000만리터)의 물을 생산할 수 있는 담수공장을 짓는 공사다. 총 공사비 24억6500만 달러 중 삼성물산 계약분은 18억 달러다.



SK건설이 건설한 쿠웨이트 원유집하시설과 가압장 시설개선 프로젝트(KOCFMP) 공사 현장. /SK건설 제공

올 하반기 해외에서 추가 수주 전망도 밝다.

200억 달러에 이르는 이집트원전 수주전에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컨소시엄이 참여할 예정이다. 지난달 중순 유엔의 대(對) 이란 제재 해제로 현지 대형 공사 발주도 기대된다.

국내 건설업계는 올 들어 중동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 이슬람국가(IS)로 인한 정세불안에다 저유가와 저금리상황이 지속되면서 현지발주가 연기된 탓이다.

올해 발주가 연기된 중동 프로젝트로는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인 아람코의 라스 타누라 대형 프로젝트(20억 달러 규모) ▲카타르 석유공사의 알카라나 석유화학 프로젝트(65억 달러) ▲도하 샤크 크로싱 프로젝트도(60억 달러) 등이다. 이번에 수주한 알주르 정유공사 사업도 지난 1월(5번 패키지)과 3월 발주하려다가 연기됐던 프로젝트다.

이 같은 영향으로 중동 발주가 줄면서 국내 업체의 해외수주액도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2일 현재(쿠웨이트 정유공사 미포함) 올해 중동 수주액은 71억7286만 달러에 불과하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8% 수준이다. 중동 수주감소로 전체 해외수주액도 지난해 같은기간의 65% 수준인 265억2338만 달러에 그쳤다.

업계 관계자는 "그간 해외수주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던 중동시장이 불황을 겪으면서 지난해에 비해 해외수주액이 크게 감소했다"면서도 "이미 중동 이외 지역에서는 평년보다 많은 수주를 한 만큼, 이번 정유공장 수주를 통해 미뤄진 중동 발주가 속개되면 해외공략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형석 기자 khs84041@metroseoul.co.kr

가시성·접근성·개방성 우수한 수도권 분양중인 상가현황 (자료:각 업체)

구분	지역	상가명	문의처
사거리 코너형	서울 강서 마곡지구	마곡 동익 드 미라벨	02-6272-3049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동탄 테크노타워	031-613-0001
도로 접한 3면 개방형	서울 마포 함정동	딜라이트 스퀘어	02-3148-1100
	서울 강남 역삼동	강남역 센트럴애비뉴	1599-4678
스트리트형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	광교 유니코어	031-8033-4770
	경기 용인 기흥역세권	기흥역 롯데캐슬 레미시티몰	031-283-6868

사거리 코너·개방형·스트리트형 '주목'

개방성·접근성 우수
높은수익 기대 상가

저금리 지속으로 수익형 부동산인 상가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경쟁상품인 오피스텔과 분양형 호텔 등의 공급이 늘어나고 있어 수익을 낼 수 있는 상가를 선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동산센터는 2일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상가로 ▲사거리 코너 상가 ▲도로를 접한 3·4면 개방형 상가 ▲스트리트형(型) 상가 등을 추천했다.

사거리 코너 상가의 경우 유동인구가 많고 횡단보도가 설치돼 구역별 이동이 수월한 장점이 있다. 또 상업시설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 접근성과 가시성이 좋아 상권활성화에 이점이 있다.

현재 분양중인 사거리 코너 상가로는 마곡 동익 드 미라벨이 대표적이다. 동익건설이 건설하는 이 상가는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17-1, 2블록에 들어선다.

동탄2지구 동탄일반산업단지 833-4번지에 들어서는 동탄 테크노타워도 현재 분양 중이다. 총 20개 점포로 3.3㎡당 분양가는 750만~2300만원선이며 대출금(40%)과 보증금을 감안하면 3억원대로 투자가 가능하다.

도로를 접한 3·4면 개방형 상가는 주로 삼거리나 교차로에 위치해 유동인구 유입이 용이하고 시세 형성에도 유리하다.

현재 분양 중인 대표적인 3면 개방형 상가로는 대우건설의 딜라이트 스퀘어가 있다.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마포 한강 1·2차 푸르지오 단지 내에 위치한 이 상가는 총 4만5620㎡의 부지에 지하 2층~지상 2층 186개 점포로 구성된다.

스트리트형(型) 상가'는 가시성과 접근성은 물론 개방감이 좋아 최근 인기가 높다. 거리를 따라 저층의 상가가 길게 늘어서는 형태로 상가 외에 문화·휴식 공간이 어우러지는 게 특징이다.

대표적인 스트리트형 상가로는 광교 유니코어가 있다. 원일종합건설이 광교신도시 내에 공급하는 이 상가의 분양가는 1층 기준 3.3㎡당 1000만원대부터 가능하다.

/김형석 기자

7월 CBSI 101.3… 주택경기 호조 영향

대형·중소기업 모두 상승

7월 건설경기실사지수(CBSI)가 100을 웃돌면서 건설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지난달 CBSI가 전월비 14.6p 상승한 101.3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CBSI란 건설기업의 부동산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지표다. 기준선인 100을 웃돌면 현재 건설경기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의미다.

업체 규모별로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지수가 상승했으며, 특히 대형과 중소기업 지수의 상승폭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업체 CBSI는 전월보다 25.0p 상승한 125.0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01년 CBSI 조사 이래 역대 4번째 높은 수치다.

이어 중견업체는 6월보다 2.8p 상승한 94.7로 2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중소업체는 전월보다 15.6p 상승한 80.9로 조사됐다.

공종별로 보면 주택분야의 신규 공사수주 지수는 전월보다 21.5p 상승한 115.2를 기록했다. 비주택 건축공사의 신규 공사수주 지수는 전월보다 18.8p 상승한 109.1를 보였다.

다만, 토목의 신규 공사수주 지수는 전월 대비 9.6p 상승했지만 기준선(100)에는 못미치는 92.0을 기록했다.

8월 CBSI 전망치는 7월 실적치 대비 2.1p 낮은 99.2를 기록했다.

이홍일 건산연 연구위원은 "통상 7월에는 혹서기, 장마로 인해 공사물량이 감소하는 계절적 요인으로 CBSI가 감소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10p 이상 상승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주택경기 호조세로 인해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실적치보다 전망치가 낮은 것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서 건설기업 체감경기가 추가적으로 더 개선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형석 기자

대우건설 '김포 풍무 2차 푸르지오' 중소형 마감

평균 청약경쟁률 1.48대 1



대우건설 김포 풍무 2차 푸르지오 조감도. /대우건설 제공

대우건설이 김포풍무2지구에 공급한 '김포 풍무 2차 푸르지오'의 중소형 9개 타입이 청약을 마감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이 단지는 지난 29일부터 이틀간 1·2순위 청약을 받은 결과 2441세대 공급(특별공급 제외)에 3614건이 접수돼 청약경쟁률 1.48대 1을 기록했다.

이중 84㎡ 이하 9개 주택형은 전 타입이 마감됐다. 59A타입의 경우 79가구 공급에 376건이 접수되며 최대 경쟁률인 4.76대 1을 기록했다. 다만, 전용면적 100㎡와 112㎡의 경우 2순위에서도 각각 51가구와, 33가구가 미달됐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5, 6일이며 지정계약일은 12일~14일까지다. 3.3㎡당 평균분양가는 1100만원 중후반대며 입주는 2018년 6월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김포시 사우동 571-2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김형석 기자

'사오정'된 신종균, 새 전략폰은 통할까

애플·화웨이·샤오미 선전에 삼성 입지 줄어
노트5·S6엣지 플러스, 구원투수 될지 주목



'미스터 갤럭시' 신종균(사진) 삼성전자 IM(IT모바일) 부문장(사장)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스마트폰 사업 경쟁력이 하향곡선을 그리면서다. 특히 2분기에 출시한 전략형 스마트폰 갤럭시 S6·S6 엣지가 기대 이하의 성적을 나타내면서 돌풍을 호언장담 했던 신 사장의 입지도 좁아졌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신 사장은 하반기에 다시 승부를 걸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오는 13일 미국 뉴욕에서 갤럭시 노트5와 갤럭시 S6 엣지 플러스(가칭)를 선보이고 다시 프리미엄 시장을 두드릴 예정이다. 이 제품의 성적표가 삼성전자와 신 사장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2일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에 7190만대의 스마트폰을 팔았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7450만대)과 비교해 360만대가 줄어든 규모다. 2분기 시장 점유율도 21.2%(출하량 기준)로 전년동기(25.3%) 대비 4.1%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애플(3520만대·11.9%→4750만대·14.0%), 화웨이(2010만대·6.8%→3050만대·9.0%), 샤오미(1510만대·5.1%→1980만대·5.8%) 등 경쟁업체는 모두 점유율과 판매량을 늘렸다.

SA의 이번 자료는 지난 30일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 발표 후 콘퍼런스콜에서 공개한 스마트폰 판매대수와 거의 일치한다. 당시 삼성전자는 "2분기에 휴대폰 8900만대를 팔았고, 이 가운데 스마트폰 비중이 80% 초반"이라고 밝혔다. 8900만대의 80%는 7120만대다.

올해 2분기에도 삼성전자는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1위를 지켰다. 그러나 프리미엄 시장에서의 위상이 흔들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업계는 갤럭시 S6·S6 엣지의 판매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앞서 신 사장은 4월초 국내 시장에 갤럭시 S6·S6 엣지를 출시하며 "판매량이 7000만대를 돌파할 것"이라고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뚜껑을 열자 당초 계산은 엇나갔다. 시장에서는 엣지 모델의 수요가 높았으나 패널 수율 문제 등이 겹치면서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지 못했고, 애플의 아이폰6 시리즈와의 대결에서도 경쟁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증권업계는 갤럭시 S6 시리즈의 판매량을 4000만대 수준으로 예측하고 있다.

과거 갤럭시 S4·S5와 달리 제품 판매량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2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갤럭시S6 시리즈 판매가 기대만큼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실상 부진을 자인했다.

하반기 스마트폰 시장 전망은 밝지 않다. 삼성전자도 2분기 경영설명 자료에서 "(하반기에) 스마트폰 수요는 전년대비 성장하지만, 성장세는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 불안과 스마트폰 시장의 침체 속에서도 애플과 화웨이·샤오미 등은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전후방에서 압박을 받는 삼성전자로서는 하반기에 출구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업계는 노트5와 갤럭시 S6 엣지 플러스가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에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애플의 아이폰 6 후속 모델에 앞서 출시하는 만큼 시장 선점 여부도 관전포인트다.

업계관계자는 "삼성전자가 하반기에 출시하는 전략형 스마트폰의 성적은 '갤럭시' 브랜드 전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갤럭시) S5와 S6에서 재미를 보지 못한 신 사장의 부담도 그만큼 클 것"이라고 말했다.

/조한진 기자 hjc@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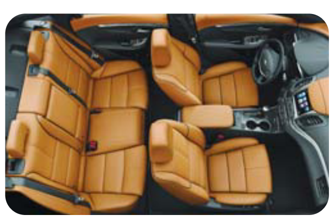
쉐보레 임팔라 출시임박… 중형차도 공략

한국지엠

엔진 2종류·가격 3종류
중·대형 고객 편입전략







북미 베스트셀링 모델인 쉐보레 임팔라의 국내 출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한국지엠은 대대적인 임팔라 홍보를 통해 대형차는 물론 중형차 고객층까지 섭렵하겠다는 전략이다. 9월 출시에 앞서 사전 계약에 들어간 한국지엠은 11일 미디어 쇼케이스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한다. 13일에는 기자단 시승행사를 통해 임팔라의 주행성능과 경쟁력을 국내 소비자에게 알릴 계획이다.

국내에 출시되는 임팔라는 △최대 출력 309마력, 최대 토크 36.5kg.m를 발휘하는 6기통 3.6리터 직분사 엔진과 △최대 토크 26.0kg.m에 기반한 4기통 2.5리터 직분사 엔진이다. 앞좌석 어드밴스드 에어백을 포함해 총 10개의 에어백을 기본 적용하고, 운전석과 동반석에 무릎 에어백을 채택했다.

가격은 △2.5L LT 3409만원 △2.5L LTZ 3851만원 △3.6L LTZ 4191만원으로 책정했다. 2가지 엔진과 3가지 가격 트림으로 △현대자동차의 그랜저와 아슬란, 기아자동차의 K7, 르노삼성자동차의 SM7은 물론 △현대차 쏘나타, 기아차 K5, 르노삼성 SM5 등 기존 중형차 고객층까지 편입시키겠다는 전략에서다.

세르지오 호샤 한국지엠 사장은 "플래그십 세단 임팔라로 쉐보레 승용 라인업을 완성했다"며 "웅장한 디자인, 파워풀하고 안락한 주행성능, 첨단 테크놀로지에 기반한 안전과 편의 사양을 바탕으로 국산과 수입 준대형급은 물론 그 이상을 아우르는 폭넓은 시장을 공략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편 쏘나타와 K5, SM5의 디젤 모델 중 가격 경쟁력은 SM5가, 힘은 쏘나타와 K5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클린디젤마케팅연구소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2016년형으로 출시된 디젤 차량의 교체 시기를 5년이라고 가정할 경우 쏘나타는 205만원, K5는 340만원, SM5 노바는 500만원이 동급인 가솔린 대비 유지비가 저렴했다. 이는 1년 주행거리 1만5000km 및 리터당 평균유가 가솔린 1664.62원, 디젤 1445.43원 기준이다.

반면 쏘나타 디젤과 K5 디젤은 각각 최대 토크 34.7 kg.m의 성능을 발휘해, SM5 노바 디젤(24.5 kg.m)보다 강한 힘을 냈다.

각사 모델의 평균 최대토크 수치는 디젤이 31kg.m, 가솔린이 26.1kg.m으로, 터보 엔진을 장착한 가솔린 차량보다 디젤 차량의 힘이 더 좋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정필 기자 roman@

삼성, 보급형 스마트폰 판매 확대 나서

갤럭시 A8·J5, 이통사 통해 프로모션 진행

삼성전자가 최근 출시한 보급형 모델들에 대해 이동통신사와 함께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판매량 확대에 나서고 있다.

2일 삼성전자는 최근 출시한 '갤럭시 A8'과 '갤럭시 J5'가 각각 SK텔레콤과 KT를 통해 프로모션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갤럭시 A8'은 지난달 24일 SK텔레콤을 통해 단독으로 출시됐다. SK텔레콤의 T월드다이렉트몰에서는 지난달 31일까지 '갤럭시 A8'을 구매할 경우 삼성전자의 슬림 배터리 팩(3000mAh)을 증정하는 프로모션이 진행됐다. 이 프로모션은 오는 5일까지 사은품 신청 홈페이지(www.skt-galaxya8.com)에 신청하면 된다.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지난달 31일, '갤럭시 A8'은 T월드다이렉트몰에서 품절되기도 했다.



갤럭시 A8 갤럭시 J5

또한 '갤럭시 A8'을 예약 구매한 고객에게는 전용 클리어 커버를 증정하는 프로모션을 같이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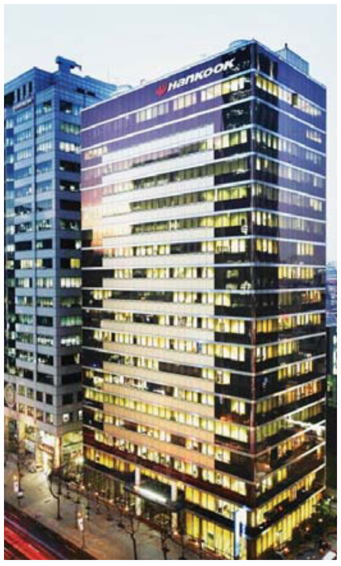
KT에서 '갤럭시 센스'라는 이름으로 판매 중인 '갤럭시 J5'의 경우에도 삼성전자와 프로모션이 진행 중이다. 오는 8일까지 '갤럭시 J5'를 개통한 고객에게 정품 배터리 교환 쿠폰을 제공한다. 해당 쿠폰은 올레 액세서리샵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임은정 기자 eunj71@



현대오일뱅크, 삼길포에 우럭 15만수 방류 현대오일뱅크(대표 문종박)는 지역경제 살리기의 일환으로 충남 대산공장 인근 삼길포에 새끼 우럭 15만수를 방류했다고 2일 밝혔다. 이완섭 서산시장과 어민 대표, 현대오일뱅크 임직원 등 50여명은 방류선을 타고 삼길포와 난지도 인근 해역을 직접 돌며 우럭을 방류했다. 현대오일뱅크가 우럭 방류 사업에 나선 것은 올해로 13년째다.

한국타이어, 고무값 하락에도 영업익 뚝


서울 역삼동에 있는 한국타이어 본사 빌딩.

원자재 하락 반영 시기 놓쳐 가격경쟁 밀려 3분기도 암울

한국타이어가 올해 2분기 암울한 성적표를 내놓은 가운데 3분기 실적도 부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원자재 가격하락 혜택을 제때 반영하지 못해 향후 가격 경쟁에서 밀리고 국내시장과 중국에서의 부진이 지속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올해 2분기 매출액 1조6199억원, 영업이익 2011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5%와 20%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누계 매출액은 3조1064억원, 영업이익은 4042억원을 기록했다. 상반기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9%, 21% 감소했다.

한국타이어는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제때 소비자들의 판매를 이끌어내지 못해 실적이 악화됐다.

실제로 천연고무와 합성고무의 가격은 올해 2분기 각각 톤당 1516 달러, 1448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12 달러, 383 달러 감소한 수치다. 이에 업계에서는 한국타이어가 가격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시장점유율을 확보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가격·판촉경쟁이 지속돼 3분기도 경영환경이 불투명할 것 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타이어는 하반기 국내시장에서 신규 출시차량에 대한 타이어 공급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지난 3월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4만3000여대에 장착된 한국타이어가 리콜사태를 일으키면서 브랜드 이미지에 적잖은 타격을 입었다.

원자재 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내시장에서는 비싸게 받고 해외에서는 싸게 덤핑을 친다는 불만도 실적하락에 한 몫했다.

올해 2분기 국내서 판매한 타이어의 매출액은 3060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9.73% 감소했다.

중국시장에서도 올해 2분기 매출이 2180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8.04% 감소했다.

중국 등 해외 투자를 위해 한국타이어가 조달할 수 있는 유동자산은 올해 2분기 연결기준으로 3조4240억원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11.7%(4558억원) 줄어든 수치다.

순차입금은 늘어났다. 올해 2분기 기준 순차입금은 2조4081억원이다. 이는 전년 동기 1조3303억원보다 81.01% 증가한 수치다. 순차입금비율은 지난해 2분기 32.5%에서 올해 2분기 50.2%로 17.7%포인트 상승했다.

/정용기 기자 yonggi@metroseoul.co.kr

기사제보=02)721-9832

"새 차처럼 고쳐 드려요"

기아차 '카 리모델링' 21일까지 홈페이지 접수

기아자동차는 고객의 차를 새롭게 변신시켜주는 '기아레드멤버스 카 리모델링' 이벤트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카 리모델링 이벤트는 다양한 작업을 거쳐 고객이 보유한 차량을 새 차처럼 재탄생 시켜 고객들이 처음 차량을 구매했을 때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이벤트다.

기아차는 3일부터 21일까지 기아레드멤버스 홈페이지를 통해 리모델링을 희망하는 고객들의 사연과 참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24일 추첨을 통해 5명을 최종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고객들의 차량은 9월중 입고돼 약 1주일간 약 150만원 상당의 차량 리모델링 작업을 받게 된다.

특히 기아차는 선정된 차량에 ▲세차 ▲광택 코팅 ▲차량용 보호 필름 등을 제공한다.



기아레드멤버스 카 리모델링 이벤트 참가자 모집 포스터. /기아차 제공

또 차급별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들에게 만족감을 선사한다는 계획이다.

차급별 특화 서비스를 살펴보면 ▲경·소형차는 필름 및 데칼 부착, 컬러 시트 교체 ▲중·대형 세단은 휠 인치 업그레이드, LED(발광다이오드) 램프 교체 ▲RV(레저용차량)는 사이드스텝, 차량용 사이드 어닝 장착 등이 있다. /정용기 기자

한화, 2017년까지 청년일자리 1만7569개 만든다

올 하반기 5729명 채용 인턴 1000명까지 확대

	2015년(하반기)	2016년(연간)	2017년(연간)	계
계획(명)	5729	5140	6700	17569

한화그룹(회장 김승연)이 2017년까지 총 1만7569명의 대규모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한화그룹은 청년 실업문제 해결을 통해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올해 하반기에 고용 창출 규모를 상반기의 2배 가까이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한화그룹은 올해 하반기 예정된 4232명의 채용 계획보다 1497명을 더 늘려 올해 남은 기간 5729명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상반기 채용인원인 2958명보다 약 2배 늘어난 규모다.

한화그룹은 우선 각 계열사별로 총 400명 규모로 예정했던 하반기 대졸 공채 인원을 600명까지 확대, 연간 1000명의 공채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약 800명 규모로 예정하고 있는 채용 전제형 인턴은 1000명까지 확대한다.

기타 연구개발(R&D) 분야에서도 33명의 대졸 공채가 진행된다.

한화큐셀, ㈜한화 방산부문, 한화테크윈 등 제조 분야의 계열사들은 기존 1182명의 채용 계획을 확대, 총 1525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한다.

한화큐셀과 한화큐셀코리아가 건설하고 있는 충청북도 음성의 모듈 공장과 진천의 셀 공장에서는 연내에 1200명에 이르는 신규 채용을 진행한다.

㈜한화 방산부문은 유도무기 개발사업 확대를 위해 120명 이상의 신규인력 채용에 나선다.

한화테크윈은 신사업 추진에 필요한 80여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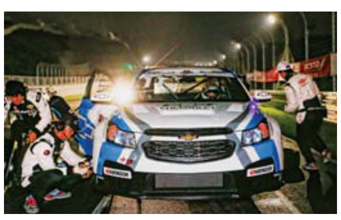
한화그룹은 2016년에는 5140명 규모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이정필 기자 roman@kr

쉐보레·금호타이어 레이싱팀 CJ슈퍼레이스 우승컵 입맞춤

쉐보레 레이싱팀은 전날 강원도 인제 스피디움 서킷에서 열린 '2015 CJ 헬로모바일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5라운드에서 GT클래스 우승을 차지했다고 2일 밝혔다.

시즌 5전까지 연전연승 행진이다. 1.8ℓ 터보엔진을 장착한 크루즈 레이스카로 GT클래스(배기량 5000cc 이하)에 출전한 이재우 감독 겸 선수는 1위를 차지하며 경기를 마쳤다.

쉐보레 레이싱팀은 개막전 이후 단 한 번의 경기도 놓치지 않음으로써 시즌 종합 우승에 청신호를 밝혔다.


쉐보레 레이싱팀 크루즈 레이스카.

금호타이어 역시 '나이트 레이스'로 열린 2015 CJ헬로모바일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5차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금호타이어의 레이싱 타이어 엑스타(ECSTA) S700을 장착한 금호타이어 소속 '엑스타 레이싱팀'의 정의철 선수는 총 22바퀴를 41분20초785의 기록으로 달려 시즌 첫 우승을 안았다. /이정필 기자

현대차 '中 정비만족도' 2위… 1년새 3계단 껑충

車 시장조사 'JD파워' 발표 기아차 776점으로 4위 기록 양사, 3년 연속 5위권 유지

현대·기아자동차는 자동차 시장조사 업체 제이디파워(J.D.Power)가 발표한 '2015 중국 정비 만족도 평가(CSI)'에서 현대차가 2위, 기아차가 4위를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현대차는 1000점 만점에 794점을 기록, 1위인 둥펑시트로엥(804점)에 이어 2위에 올랐다. 기아차는 776점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4위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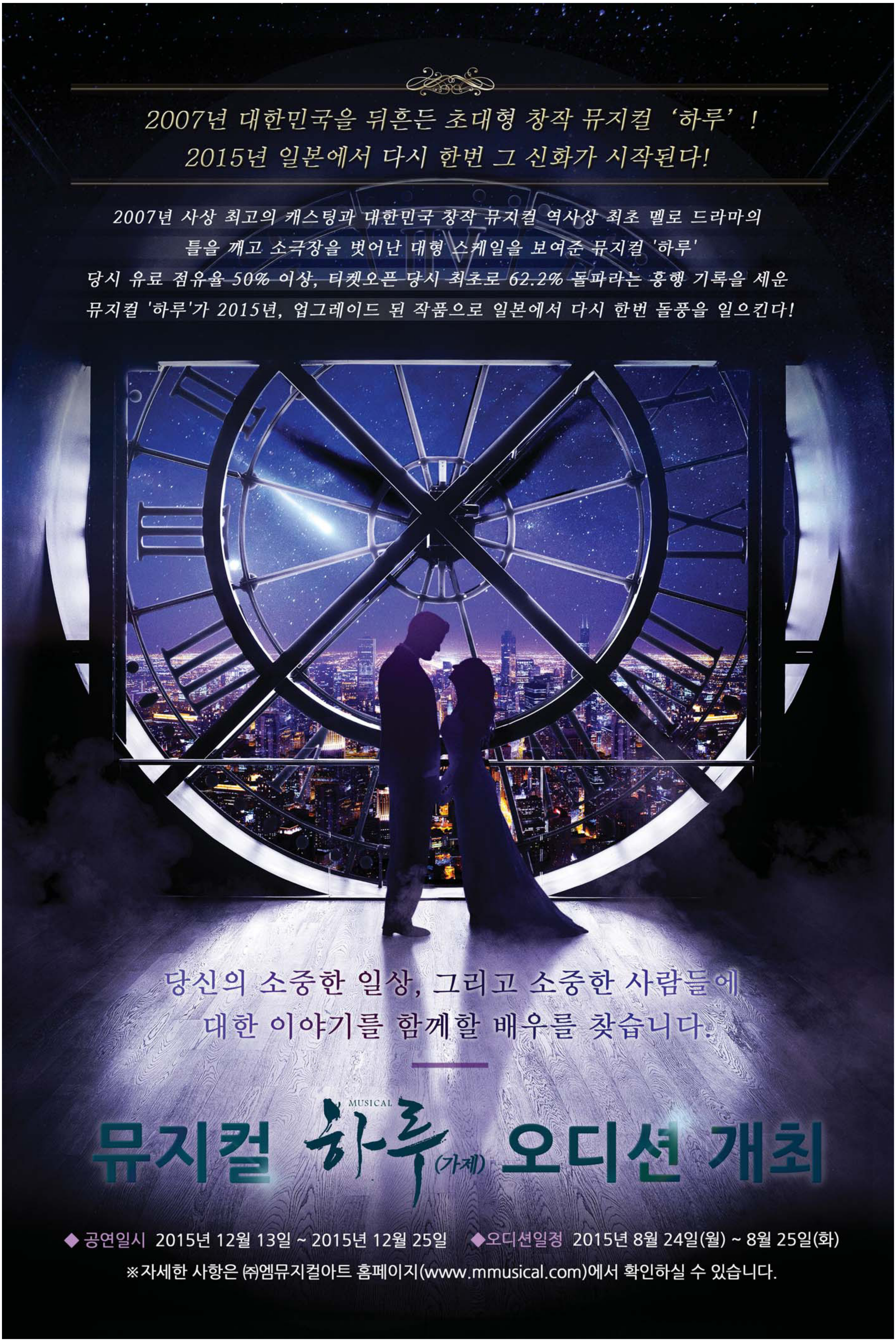
이로써 현대·기아차는 지난 2013년부터 3년 연속으로 양사 모두 5위권을 유지했다.

특히 현대차는 지난달 발표된 제이디파워의 '2015 중국 판매 만족도 평가'에서 2년 연속 1위에 오른데 이어 이번 평가에서도 지난해보다 3계단 상승한 2위에 올랐다.


지난달 31일 제이디파워(J.D.Power)가 발표한 '2015 중국 정비 만족도 평가(CSI)'에서 현대차가 2위, 기아차가 4위를 기록했다. /현대차 제공

평가항목은 ▲고객 응대 ▲정비 인력 ▲딜러 시설 ▲정비 후 차량 인도 ▲서비스 품질 등 5개로 구성돼 있다.

일반브랜드 부문 58개, 고급브랜드 부문 9개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8개월간 51개 도시에서 차량구매와 정비입고 고객 총 1만7976명과 일대일 인터뷰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용기 기자



2007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초대형 창작 뮤지컬 '하루'!
2015년 일본에서 다시 한번 그 신화가 시작된다!
2007년 사상 최고의 캐스팅과 대한민국 창작 뮤지컬 역사상 최초 멜로 드라마의
틀을 깨고 소극장을 벗어난 대형 스케일을 보여준 뮤지컬 '하루'
당시 유료 점유율 50% 이상, 티켓오픈 당시 최초로 62.2% 돌파라는 흥행 기록을 세운
뮤지컬 '하루'가 2015년, 업그레이드 된 작품으로 일본에서 다시 한번 돌풍을 일으킨다!
당신의 소중한 일상,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할 배우를 찾습니다.
MUSICAL
뮤지컬 하루(가제) 오디션 개최
◆ 공연일시 2015년 12월 13일 ~ 2015년 12월 25일
◆오디션일정 2015년 8월 24일(월) ~ 8월 25일(화)
※자세한 사항은 ㈜엠뮤지컬아트 홈페이지(www.mmusical.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T 황창규식 흑자전환 '빛 좋은 개살구'

기로에 선 통신산업

한국통신산업이 흔들리고 있다. 소비자·통신사·제조사 모두의 불만이 높다. 날로 올라가는 단말기 값과 통신요금에 소비자들은 울상이다. 가계통신비 부담이 계속 늘고 있지만 탈출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제조사들의 상황도 여의치 않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이후 침체된 시장상황이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요금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통신사 역시 수익 창출에 고민이 커진 상황이다. 통신업계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고민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해본다. [편집자 주]

황창규 회장 체제의 KT가 출범한지 1년 6개월이 지났다. 임기의 절반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갈피를 못 잡는 모습이다. 장기적인 비전이나 발전방안은 실체가 없고 인력감축, 알짜 계열사 매각 등을 통한 단기 실적 부풀리기에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내외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2일 KT의 실적발표에 따르면 올 2분기에 IFRS(국제회계기준) 연결 기준으로 매출 5조4313억원, 영업이익 3688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2분기와 비교할 때 매출액은 3.6% 감소했으며, 영업이익은 흑자전환했다. 그러나 이번 흑자전환은 지난해 2분기에는 구조조정의 여파로 1조7330억원의 인건비가 발생했으나, 올해 2분기에는 54.6%나 줄어든 7851억원에 밖에 인건비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분기 KT 개별 재무제표 기준 잠정 영업이익은 2852억원, 당기순이익은 4062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흑자전환했다.

장기비전·발전방안 실체 없어 잇단 알짜 계열사 매각 '눈살'

영업이익에 더해 영업외손익이 지난해 2분기 1702억원 손실이 났었지만 올해는 2481억원의 흑자로 돌아서면서 당기순이익도 더욱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알짜 계열사인 KT캐피탈, KT렌탈을 매각한 것이 적절한가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또 KT가 지난 3월 롯데그룹에 KT렌탈을 1조200억원에 매각한 것도 논란이다. 자회사 매각 수입을 부채 상환 등 재무건전성 강화에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KT의 올 2분기 부채는 13조9373억원이고 이는 총 자본 대비 부채비율이 135%에 달한다. 또한 이 중 순차입금은 7562억원으로 총자본 73%에 달한다.

KT가 5월 15일에 발행한 분기보고서 기준 연 3.55%의 이자비율을 2분기 순차입금에 적용하면 연간 268억가량의 이자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월 기준으로 22억3710만원의 이자비용이 발생한다. 1일 평균 7350만원 꼴이다.

순차입금이 높으면 높을수록 KT 재무 상태의 위험성을 동반한다. 순차입금에 따른 부담해야하는 이자비용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KT 별도기준 올해 인건비가 4747억원으로 지난해 2분기(1조5656억원)과 비교해 3분의 1 토막으로 줄었다. 지난해 2분기 대규모 구조조정에 따른 인건비 절감 덕이 크다.

또한 온라인 판매 등 비용이 적게 드는 유통채널 강화와 단통법 이후 줄어든 마케팅 비용, 단말기 지원금을 회계 처리에 포함하지 않는 등의 요인으로 영업비용 중 판매관리비도 5143억원으로 전년동기(7717억원) 보다 33.3% 줄었다.

한편 황 회장은 최근 임기 내 경영 성과 달성에 급급해 알짜 계열사를 잇따라 매각했다. KT는 6월 30일 자회사 KT캐피탈 주식 2311만7738주를 약 2522억원에 처분했다. 핀테크 열풍이 불고 내년 초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범하는 등 ICT(정보통신)와 금융 간의 융합이 활발한 시점에 팔아야했는지 의문이 일고 있다. 또 매각한 롯데렌터카(전 KT렌터카) 매각도 논란이 일고 있다. 매각 대금을 통한 단기실적 부풀리기 용이라는 지적이다.

/정문경 기자 hm0108@metroseoul.co.kr



2일 서울 용산 LG유플러스 본사에서 사내 홍보 모델들이 '톡톡 듀얼넘버' 서비스 출시를 알리고 있다. /LG유플러스 제공

"스마트폰 하나로 카톡계정 두개"

LGU+, 톡톡 듀얼넘버 출시

LG유플러스는 하나의 스마트폰에서 두 개의 전화번호를 부여받아 사용하는 '듀얼넘버' 서비스의 업그레이드 버전 '톡톡 듀얼넘버'를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톡톡 듀얼넘버는 자사 가입자의 모든 안드로이드폰에서 하나의 스마트폰에 두 개의 번호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본 기능에 카카오톡 등의 추가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료는 기존과 같은 3000원(부가세 포함 3300원)이다.

서비스는 제공하는 추가 전화번호로 태블릿 등에 인증 문자를 받아 카카오톡 등 메신저 앱을 각각 설치해 스마트폰과 태블릿에서 구분해 사용할 수 있다.

LG전자 G4 단말기를 사용하는 고객들 중 멀티계정 기능을 이용하면 서비스에 가입 시 하나의 스마트폰을 두 개의 폰을 사용하는 것처럼 계정마다 카카오톡 등 메신저 앱을 따로 설치하고 추가 전화번호로 인증 받아 이용할 수 있다. /정문경 기자

CJ헬로비전 티빙, 휴가철 영화 VOD 할인

CJ헬로비전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영화 VOD를 즐기려는 이용자들을 위해 가격 할인과 경품 증정 등 행사를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우선 현재 영화 '19곰 테드2' VOD 구매자를 대상으로 10명을 추첨해 실제 테드 곰인형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오는 5일까지 해당 영화를 구매하면 자동 응모된다. 당첨자는 12일 발표된다.

톰 크루즈의 '미션 임파서블:로그네이션'개봉 기념 이벤트도 있다. 티빙 이용자들은 오는 7일까지'미션 임파서블' 시리즈 등 톰 크루즈 출연의 명작 뿐 아니라 '트랜스포머' 등 파라마운트 사의 60여 편 명품 고전을 50% 할인된 가격인 750원에 각각 이용할 수 있다. /정문경 기자

SKT, 세계 최초 '해상 무선통신망' 구축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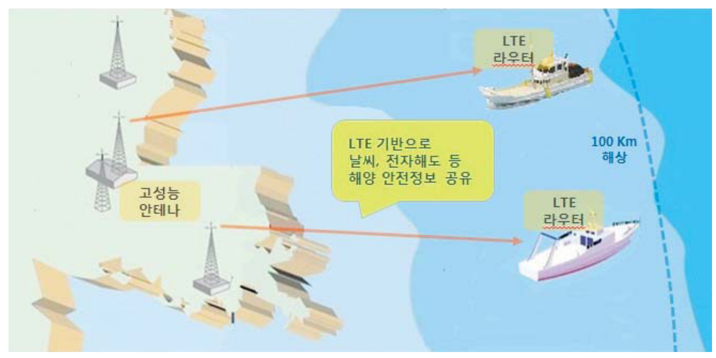
근해상 초고속 통신길 열려
재난망 연계 실시간 서비스

대한민국 근해상에서 초고속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시대가 열린다.

SK텔레콤은 해양수산부 주관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 근해상에서 LTE 통신을 지원하는 초고속 해상 무선통신망(LTE-M) 시험망 구축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LTE-M은 육지에서 100㎞ 떨어진 해상에서 고속으로 데이터 통신을 가능케 하는 네트워크다.

LTE-M이 완성되면 육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속 데이터 통신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던 대한민국 인근 해역의 선박들도 LTE 네트워크 기반의 통신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해상 날씨나 각종 선박 관련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SK텔레콤의 초고속 해상 무선통신망(LTE-M) 개념도. /SK텔레콤 제공

재난망과 연계돼 서비스가 제공되는 LTE-M은 대형선박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해상 조난에 대비한 통신·안전 시스템이 취약한 소형선박들의 운항 안전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라고 SK텔레콤은 설명했다.

SK텔레콤은 내년 5월까지 동해안에 LTE-M 시험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LTE-M은 높은 고도에 위치하고 있는 해안 기지국에서 고성능 안테나를 통해 국가재난안전통신망과 동일한 700MHz 주파수 대역을 통해 전파를 송출하면, 선박에서 이를 수신하는 구조다. /정문경 기자

LGU+, VoLTE 기반 가상화 기술 상용화 급물살

VoLTE 상용망 적용 시연 성공

LTE 음성통화(VoLTE)를 기반으로 한 신규 서비스 출시가 빨라질 전망이다. LG유플러스는 VoLTE 신규 서비스의 빠른 적용을 위해 네트워크 가능 가상화(NFV)기술을 VoLTE 상용망에 적용하는 시연을 성공했다고 2일 밝혔다.

NFV는 네트워크 장비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분리 운영해 범용 하드웨어 플랫폼에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가상화해 구동할 수 있는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이다.



2일 LG유플러스 네트워크 직원들이 독산 사옥에서 NFV 기술을 적용한 VoLTE 영상통화를 시연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제공

이번 가상화 기술이 네트워크에 적용되면 별도 하드웨어로 동작하던 각각의 네트워크 장비를 대용량의 가상화 서버 위에서 운영할 수 있게 돼 간단한 소프트웨어 설치만으로도 신규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다.

NFV 기반의 vCSCF기술은 VoLTE를 포함한 All-IP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또한 NFV 기반의 vSPGW기술은 LTE망에서 트래픽 처리, 패킷과금 생성과 QoS(Quality of Service)를 제어하는 핵심 장비다.

NFV기반의 VoLTE 상용화로 기존 서비스뿐 아니라 가상화 환경의 도입 목적에 맞게 고객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보다 빨리 제공할 수 있는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정문경 기자

롯데 '중국 적자 1조' 신동주 주장 사실로

롯데쇼핑·롯데칠성음료 등 중국·홍콩 법인 4년간 적자

"적자 사실 제대로 보고 안해" 신동주 주장 사실로 확인

롯데그룹 주요 상장사 중국·홍콩 계열사 순이익 추이

년도	롯데쇼핑	롯데제과	롯데칠성	롯데케미칼	누적
2011년	-754	-126	-85	38	-927
2012년	-1,883	-595	-106	75	-2,508
2013년	-1,830	-337	-131	29	-2,270
2014년	-5,549	-180	-93	14	-5,808
누적	-11,513				
2014년 1분기	-494	-76	-13	3	-580
2015년 1분기	-320	-14	-11	-26	-372

자료 : CEO스코어 / 단위 : 억 원

/연합뉴스

롯데그룹(회장 신동빈)이 중국과 홍콩에서 최근 4년간 1조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했다는 신동주 일본 롯데홀딩스 전 부회장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나왔다.

2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롯데그룹의 주요 상장사인 롯데쇼핑·롯데제과·롯데칠성음료·롯데케미칼의 중국과 홍콩 법인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1조1513억원의 적자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적자액은 ▲2011년 927억원 ▲2012년 2508억원 ▲2013년 2270억원 ▲2014년 5808억원 등이다.

특히 지난해 롯데쇼핑 자회사인 홍콩 롯데쇼핑홀딩스의 적자규모는 3439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491% 증가했다.

지난해 중국사업 전체 적자액의 59.2% 수준이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최근 제기한 '중국 사업 1조원 손실' 주장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30일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 이어 31일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중국 사업에서 1조원 가량 손실을 본 사실을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고, 신 총괄회장이 이를 뒤늦게 알고 격분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롯데그룹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

이원준 롯데백화점 대표는 지난달 31일 롯데백화점 기자실을 방문해 "신 총괄회장은 중국 사업의 적자 현황을 알고 있었다"며 신동주 전 부회장의 주장에 반박했다.

롯데그룹의 경영 현황을 날마다 보고받고 꼼꼼히 챙기는 신 총괄회장이 4년 이상 계속된 적자를 모를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이 사장은 또 "여러 여건을 감안할 때 중국에서 백화점 사업은 통상 7년이 지나야 이익을 낼 수 있다"며 "백화점 진출 첫해인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누적 적자가 법인세·이자·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EBITDA) 기준으로 1600억원 수준이지만 점차 개선돼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EBITDA는 기업이 영업 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 창출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법인세·이자비용·감가상각비·무형자산상각비를 차감하기 전의 영업이익으로, 실제 영업이익과 순이익과는 차이가 있다.

롯데그룹 측이 중국 사업 손실 규모를 영업손실이나 당기순손실이 아닌 EBITDA로 밝힌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박상길 기자 sweatsk@metroseoul.co.kr

신동주 "롯데홀딩스 주총대결 승리 확신"

지분 다 합하면 절반 넘어 주주총회 표 대결 이길것 신격호 회장 대표직 복귀도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사진·61)이 조만간 열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의 롯데홀딩스 주주총회 표 대결에서 승리할 것을 자신했다.

그는 주총에서 승리하면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을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에 복귀시키겠다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은 2일 SBS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 중에 광윤사와 우리 사주의 우호지분을 합하면 절반을 넘는다"며 "우리사주의 찬성이 있으면 지금의 이사진을 모두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신 전 부회장은 그러면서 "주총에서 승리할 경우 자신을 따르다가 해임된 이사진과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을 대표이사직에 돌려놓겠다"고 했다. 또 "3일 롯데홀딩스 우호 지분 확보를 위해 일본으로 출국, 광윤사 등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달 신격호 총괄회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때린 사실도 털어놨다.

그는 "아버지가 동생에게 심하게 화를 내며 때렸고, 이후 신동빈 회장이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을 찾아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달 6일 동생에게 한국에서 만나 잘 해결해보자고 말했지만 동생인 신 회장이 이를 거절했다"며 "동생은 자신이 한국과 일본 롯데그룹 전체를 이끌어야 한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겠다고 했다"고 했다.

한편 이날 롯데그룹(회장 신동빈)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장녀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사진)과 5촌 조카인 신동인 롯데 자이언츠 구단주 직무대행이 '중립'이 아니라, 신동주 전 부회장의 편에 서 있다고 주장했다.

롯데그룹 핵심 관계자는 "(신영자와 신동인) 그 사람들이 다 조종하고 있고, 신 이사장이 롯데호텔 34층을 점령해 온갖 소리를 양산하고 있다"면서 "롯데그룹이 위기상황이 되면 덕 볼 사람이 누구겠냐. 결국 그 사람들의 목표는 롯데그룹에서 한 몫 떼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동주 전 부회장 편에 선 신선호 일본 산사스 사장에 대해서도 "그분은 신 총괄회장에게 한이 있는 사람"이라며 "롯데가 망가져도 제일 기분 좋은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신 총괄회장의 한국 롯데 임원 해임 지시안으로 알려진 이른바 '살생부'에 이인원 부회장과 황각규 사장 등이 포함된 데 대해 "저쪽(신 전 부회장 측)에서 (그런 내용을) 흘려서 이쪽(신 회장 측)에 힘 빼기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상길 기자



"리틀버스 론칭 행사 즐기러오세요" 2일 마더케어 홈플러스 서울 잠실점에서 고객들이 리틀버드 상품을 둘러보고 있다. 마더케어는 영국 유명 요리사 제이미 올리버의 아내인 줄스 올리버가 디자인한 브랜드 '리틀버드'를 국내 매장을 통해 선보인다. 마더케어는 홈플러스 잠실점, 강서점, 영등포점 및 인천 작전점, 부천 상동점, 수원 영통점, 부산 센텀시티점, 대전 둔산점, 경북 구미점에 입점해 있다. /홈플러스 제공

국내 中企 40곳, 미국서 우수제품 판매전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미국 최대 한류문화 축제인 'KCON 2015 USA'와 연계해 지난달 31일부터 사흘간 캘리포니아주(州) 로스앤젤레스에서 '우수 중기제품 전시·판매전'을 열었다고 2일 밝혔다.

CJ E&M이 2012년 캘리포니아 어바인에서 처음으로 연 KCON은 미국에 한류를 소개하는 콘서트와 컨벤션 등이 결합된 문화 행사다.

올해 KCON과 연계한 우수 중기제품 전시 판매전에는 화장품·의류, 아이디어 생활용품, 문화콘텐츠 등 한류와 관련있는 업종의 40개 기업이 참여했다.

제품 홍보를 위해 한류 연예인이 직접 행사장을 찾아 제품을 사용해 보기도 했다.

해외브랜드 최대 80% 할인

롯데·현대百 6일까지 행사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 등 백화점 업계가 6일까지 해외브랜드를 최대 80%까지 할인 판매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은 2일까지 3층 행사장에서 '영 패션 여름 인기상품 최종가전'을 열고 라인과 케네스레이디, JJ지고트 등을 50~80% 저렴하게 판매한다.

원피스는 3만9000~9만9000원, 블라우스는 2만9000~6만9000원 등이다.

구리점은 6일까지 7층 특설매장에서 아웃도어 브랜드 '에이글 고별전'을 연고 티셔츠와 재킷 등을 60~80% 할인판매한다.

현대백화점은 2일까지 압구정본점과 무역센터점 층별 행사장과 대행사장에서는 끌로에와 무이·멀버리 등을 최대 70% 할인 판매한다. 끌로에 가방 84만9000원, 무이 라파로 샌들 27만5000원 등이다. /박상길 기자

AK몰, 오늘부터 일주일간 '파워딜 위크'

할인혜택·경품이벤트 등

AK플라자가 운영하는 종합온라인쇼핑몰 AK몰은 3일부터 9일까지 '파워딜 위크'를 열고 여름시즌 상품에 대한 할인 혜택과 경품 제공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AK몰은 이 기간 매일 추천 파워딜 상품들을 선보이며 댓글 참여를 통해 해당 상품을 무료 증정하는 '쇼미더드립', 간식을 100원에 제공하는 '11시의 유혹', 배송비만으로 상품을 제공하는 '4시의 유혹' 등 혜택의 이벤트를 제공한다.



'요일별로 토마토 골라드세요~' 2일 서울 중구 봉래동에 위치한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고객이 5종의 컬러 방울토마토를 구경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흑피 대추방울토마토, 노랑 대추방울토마토, 초록 대추방울토마토 등 5종의 방울토마토를 250g/컵 형태로 출시해 각 1900원에 판매한다. /롯데마트 제공

롯데월드몰 규제완화 한달, 방문객 20%↑

롯데물산(대표 노병용)은 지난달 1일 롯데월드몰에 대한 서울시의 주차제도 완화 조치 후 한달 만에 방문객이 20%가량 늘었다고 2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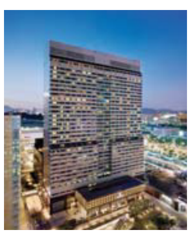
7월 일 평균 방문객수는 지난해 10월 오픈 수준인 9만4000여 명으로 6월 일 평균 7만6000여 명 대비 24% 가량 늘었다. 매출도 6월 대비(7월1~30일, 6월1~30일 비교) 20% 가량 늘었으며, 고객 주차대 수도 6월 대비 4배 가량 증가했다.

/박상길 기자 sweatsk@

GS리테일-건설, 파르나스호텔 인수

GS리테일(대표 허승조)은 지난 31일 GS건설과 파르나스호텔 지분 67.56%를 7600억원에 인수하는 본계약을 체결했다.

GS리테일은 '인터콘티넨탈' 호텔과 더불어 파르나스호텔 자체 브랜드인 '나인트리'를 활용해 비즈니스 호텔과 같은 다양한 사업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호텔 서비스에 GS리테일의 소매 유통 경험과 상업시설 운영 노하우를 접목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성현 기자 minus@

풀무원 '유기명일엽 녹즙' 잠정 판매 중단

풀무원건강생활(대표 여익현)의 풀무원녹즙이 '유기명일엽 녹즙' 출시 20년 만에 처음으로 생산을 잠정 중단한다. .

3일 업계에 따르면 풀무원건강생활은 최근 유기명일엽 녹즙을 마시는 고객 2만 명에게 이날부터 2주간 배달·판매를 잠정 중단한다고 안내했다.

유기명일엽 녹즙은 풀무원건강생활이 1995년부터 생산한 대표적인 녹즙 음료다.



100%명일엽만으로 만든다. 풀무원건강생활 관계자는 "강원도 원주에서 주로 생산되는 명일엽이 계속되는 가뭄에 좋은 재료를 구하기 힘든 상황이라 약 2주간 100% 명일엽으로 만드는 유기명일엽 녹즙 생산을 잠정 중단했다"고 설명했다./정은미 기자

CJ '스윗푸딩 밀키베어·초코베어' 출시

CJ제일제당(대표 김철하)의 프리미엄 디저트 브랜드 쁘띠첼이 '스윗푸딩 밀키베어'와 '스윗푸딩 초코베어' 2종을 출시했다.

쁘띠첼 스윗푸딩 밀키베어와 초코베어는 우유 맛과 초콜릿 맛을 구현해 푸딩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도 부담 없이 접할 수 있도록 한 제품이다. 기존 스윗푸딩보다 좀더 탱글탱글한 식감이 특징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가격은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기존 자사 스윗푸딩 제품보다 낮춰 90g 1500원에 판매한다.

유업계, 고급화로 부진 돌파

서울우유·남양유업 등 프리미엄 신제품 출시 실적개선·비상경영 돌입

우유 소비 감소로 실적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유업계가 프리미엄 우유 신제품으로 실적개선에 나섰다.

2일 한국유가공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원유 재고량은 27만3214톤이다. 사상 최고치였던 3월 재고량 28만659톤보다는 조금 줄었지만 우유 소비 감소로 재고량은 매달 늘고 있다.



왼쪽부터 서울우유 '밀크랩 고단백 저지방 우유', 남양유업 '옳은 유기농 우유', 연세대학교 연세우유 '무지방+고칼슘우유 단백질'.

우유 재고 부담은 그대로 유업계 실적에도 영향을 끼쳤다.

매일유업은 1분기 영업이익이 43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9.44%나 감소했다. 지난해 4분기까지 6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던 남양유업은 비상경영 덕에 올해 1분기 24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그러나 매출액은 2829억원으로 전년대비 3.3% 감소했다. 서울우유협동조합 역시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업계는 이 같은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 프리미엄 우유 제품을 잇달아 선보이며 실적 개선에 나섰다.

서울우유는 최근 '밀크랩 고단백 저지방 우유'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우유단백질과 칼슘을 일반우유 대비 1.8배 높여 우유를 통해 양질의 영양소를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가격은 180mL, 850원으로 200ml 750원 수준을 감안하면 25% 정도 비싸다.

연세대학교 연세우유도 지방은 빼고 우유의 주요 영양소인 칼슘과 단백질 함량은 높인 '무지방+고칼슘우유 단백질'을 선보였다. 이 제품은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함량을 0%로 낮춘 대신 칼슘은 일반우유 대비 2.5배 높였다. 가격은 180mL, 850원이다.

남양유업은 유기농 제품인 '옳은 유기농 우유'를 5년 만에 새로운 콘셉트로 리뉴얼해 선보였다.

이 제품은 항생제를 넣지 않은 유기농 사료만을 먹인 젖소로부터 직접 집유해 만든 우유다. 생산부터 배달까지 전 과정 온도를 0~10도로 유지해 가정에서도 목장에서 갓 짜낸 듯한 신선함을 느낄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가격은 180ml 기준으로 1650원이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원유재고 문제, 소비시장 위축 등으로 유업계 전체가 비상경영에 돌입한 상황"이라며 "프리미엄 제품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낮지만 일반 제품과 프리미엄 제품으로 라인을 강화해 시장을 확대하고 수익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글라스락' 캐나다 코스트코 재입점

삼광글라스 美 코스트코·월마트 등 판매 채널도 확보 예정

삼광글라스(대표 이도행·사진)가 올해 북미 매출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

캐나다에서 코스트코와 같은 주요 판매처에 다시 입점하는 한편 미국에서는 신규 판매채널도 확보할 계획이다.

2일 삼광글라스에 따르면 이달 중 캐나다 코스트코에 유리 밀폐용기 '글라스락'이 재입점된다.

글라스락은 2008년 캐나다 코스트코에 첫 입점해 86개 전 점에서 판매돼 오다 지난해 말 글로벌 브랜드의 저가 공세에 밀려 빠졌다. 경쟁 제품의 판매가 부진해지면서 8개월 여 만에 다시 들어가게 된 것이다.

캐나디안 타이어, 런던 드러그 등 캐나다의 대형마트에서도 글라스락을 판매 중이나 코스트코는 전체의 40%의 매출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주요 판매처다.



삼광글라스 측은 "경쟁 제품이 구성이 다양하지 않다 보니 주로 세트 상품 위주로 판매되는 코스트코에서는 매출이 높지 않았던 것 같다"며 "이번에 재입점하면서 수출 전용 상품 '글라스락 스마트'를 우선 마트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글라스락 스마트는 캐나다를 비롯해 중국과 미국의 일부 할인마트에서도 판매 중이다. 삼광측은 글라스락 스마트를 미니사이즈부터 대용량까지 총 9종 세트로 구성해 캐나다 코스트코에 선보일 계획이다.

미국 코스트코에도 내년께를 목표로 재입점을 준비 중이다. 미국 코스트코는 약 500여 개 지점이 있다. 이 중 95%의 매장에서 2008년부터 글라스락을 판매해 왔으나 2012년 경쟁제품이 저마진으로 들어오면서 판매가 중단됐다. 미국 전체 판매처 중 매출 비중이 75%인 미국 코스트코에서 빠지면서 글라스락의 북미 매출에도 타격이 컸다. 2010년 약 220억원이었던 북미 매출은 2012년 200억원으로 줄었고 2013년 약 100억원으로 절반이 꺾였다.

삼광글라스는 코스트코 재입점과 함께 미국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유통기업인 월마트 신규 입점도 추진 중이다.

유통 채널 확대로 하락했던 북미 매출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캐나다와 미국을 포함한 북미 시장은 중국과 함께 글라스락의 주요 수출국 중 하나다. 삼광글라스 관계자는 "전체 수출액 중 북미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으로 20% 정도이나 캐나다 코스트코 재입점으로 그 비중이 25%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에는 미국 유통망 확대에 따라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ksj0215@

"韓의료관광, 이젠 걱정 없어요"

한국관광공사

주한 외국인 대상 이벤트 참가자 통해 SNS 홍보도



유커와 일본관광객을 상대로 한 의료관광체험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제공

메르스로 침체된 방한시장의 조기 회복을 위한 한국관광공사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공사는 한국 거주중인 중국인과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국의료관광 체험 이벤트를 이달 31일까지 열고 참가자를 통해 SNS 홍보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피부과, 한방병원, 종합병원의 건강검진 등 외국인 대상 주요 프로그램 체험에 참여한 40여명은 공사에서 운영하는 주한 외국인 SNS홍보단인 '주한일본인네트워크'와 재한 중국인 유학생 SNS 기자단 '한유기' 회원들이다.

이들은 오는 31일까지 피부미용, 사상체질에 따른 한방치료 관리, 종합검진 프로그램 등을 체험하고 본인이 운영하는 웨이보와 웨이신, 아메바 블로그, 페이스북 등 주요 SNS 매체에 생생한 경험담을 남기게 된다. 또한 이렇게 생성된 컨텐츠는 한국의료관광통합플랫폼(www.visitmedicalkorea.com)에서 UCC형태로도 소개될 예정이다.

이번 체험 행사에 참가한 중국인 유학생 진천위(남·27)씨는 "처음 메르스가 한국에서 발생한 후 병원에 가는 것조차 불안했던 것이 사실인데 이번 건강검진 프로그램 체험을 통해 그런 불안감도 해소됐을뿐 아니라, 외국인을 위한 언어서비스는 물론 편리한 시설과 다양한 프로그램에 놀랐다"며 "웨이보와 웨이신을 통해 이제 한국관광 뿐만 아니라 의료관광도 문제가 없음을 알릴 예정"이라고 참가 소감을 말했다.

관광공사 김세만 의료관광센터장은 "메르스 우려 종식과 한국의료관광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다각적 홍보방안을 강구중이며 이번 SNS홍보단 운영은 그 시작"이라며 "연말까지 방한 의료관광프로그램과 상품을 최대 50%까지 할인하는 K-뷰티&메디컬 해피 세일과 다양한 방한 의료관광상품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한국의료관광온라인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안전하고 믿을수 있는 한국의료관광을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치선 기자 chisunti@metroseoul.co.kr



이천롯데프리미엄아울렛, 김해 가야역사탐방단 운영 이천롯데프리미엄아울렛은 오는 4~6일까지 2박 3일간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김해 가야역사탐방단'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천롯데프리미엄아울렛에서는 매월 3번째 일요일 마다 방문고객을 위한 정기이벤트인 '2000개의 보물을 찾아라' 이벤트도 열고 있다. /박상길 기자 sweatsk@

간식은 충분히, 약물은 여기저기, 관광은 천천히

당뇨환자 안전한 여행 팁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작년 7~8월 출국자는 약276만명으로, 올해는 해외로 여름휴가를 떠나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평소 당뇨를 앓고 있다면 해외여행 시 보다 철저한 건강관리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건국대병원 당뇨센터 최수봉 교수는 "당뇨 때문에 해외여행을 기피하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는데, 평소 혈당관리가 안정적이고 여행 시 주의사항만 잘 지킨다면 충분히 안전한 여행을 즐길 수 있다"며 "다만 응급상황 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동행이나 가이드에게 본인 상태를 알리고 여행지에서 당뇨발과 같은 합병증이 오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 비상상황 대비하기

최근 1~2달 동안 혈당이 안정적일 경우에 여행을 확정하는 것이 좋다. 저혈당을 대비한 간식이나 당뇨 환자임을 알 수 있는 인식표와 당뇨수첩을 챙기는 것이 좋다. 또 '당뇨발'이라고 부르는 당뇨병성 족부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통풍 잘되는 편안한 신발과 땀 흡수가 잘 되는 양말을 함께 챙기는 것이 좋다.

◆ 약은 넉넉히 준비

경구약이나 인슐린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면 여행기간 보다 충분하게 약물을 챙겨가는 것이 좋다. 인슐린 주사는 하루라도 빠지면 안되기 때문에 분실을 대비해 분산시켜 짐을 싼다.

◆ 비행기 안 주의사항

티켓을 끊을 때 미리 당뇨 기내식을 예약하는 것이 좋다. 혈당 측정기나 인슐린은 기압과 온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기내에 들고 타야 한다.

◆ 느긋하게 여행 즐기기

무리하게 여행 일정을 짜지 말고 혈당측정기로 평소보다 자주 혈당을 체크하는 것이 좋다. 또 체액부족으로 혈당이 높아지지 않게 자주 물을 마시도록 한다.

/도움말:건국대병원 당뇨센터 최수봉 교수

/최치선 기자

꾸준한 모유 수유, 첫 1주일에 달렸다

이대목동병원

올바른 모유수유법 제시

이대목동병원은 8월 첫째 주(8월 1일~7일) 세계모유수유주간을 맞아 완모맘(모유만 먹이는 엄마)을 위한 올바른 모유 수유 상식을 제시했다.

◆ 모유의 양과 질, 오해와 진실

모유의 양이 부족해 고민하다가 모유 수유를 중단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처음부터 모유의 양이 적다고 모유 수유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

특히 누구나 젖이 적게 나오는 시기인 모유 수유 첫 일주일이 가장 중요하다. 젖의 양은 자주 물릴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산모 스스로 인내심과 자신감을 갖고 모유 수유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 B형 간염 엄마도 수유 가능

아기가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B형간염 예방주사와 면역 글로불린을 접종하면 모유를 먹여도 안전하다.

이외 갑상선 기능 저하증, 당뇨병, 고혈압 증상이 있는 산모도 복용하는 약물만 조절하면 모유 수유가 가능한 경우가 많다.

◆ 모유 수유, 산모 건강에도 좋아

모유 수유를 오래 하면 산모에게도 이점이 있다. 국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유 기간이 길수록 유방암의 발생 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연구에 의하면 출산 후 모유 수유는 고혈압 발생률을 낮추고 동맥경화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김영주 교수는 "모유 수유는 적어도 1년 동안 하는 것이 산모와 아이 모두의 건강을 위해 이로운 만큼, 모유 수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숙지하고 수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치선 기자

르네상스 서울 호텔 "늦여름을 부탁해"

실속에 품격 더한 패키지 8월 가족여행에 추억 선물



르네상스 서울 호텔은 8월 한달간 온가족이 함께 여름 휴가의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늦여름을 부탁해 패키지'를 실속있는 가격에 다양한 혜택과 함께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디럭스 룸 1박, 뷔페 레스토랑 카페 엘리제 2인 무료 조식(만 6세 이하 자녀 최대 2인 무료 조식), 르네상스 풀-카페 스낵 메뉴 무료 , 유리돔을 통해 비치는 자연광을 즐길 수 있는 실내 수영장 이용, 레크리에이션 센터와 사우나 2인 무료, 객실 내 무료 인터넷, 무료 셔틀(상행)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특별 선물로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플레이모빌 미스터리 시리즈 7·8탄이 제공되고 스탠딩 피규어 및 디오라마가 메인 로비에 전시된다.

성남 아트센터에서 진행하는 '플레이모빌 아트전' 성인 2인, 어린이 1인 초대권도 제공돼 어린이 고객들에게 보다 많은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패키지 가격은 18만5000원부터다.(세금·봉사료 별도) 문의 (02)2222-8500 /박상길 기자

임진각~민통선… 평화통일 위해 달린다

제11회 손기정 마라톤대회 10월 25일 임진각서 스타트

제11회 손기정 마라톤 대회가 오는 10월 25일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에서 열린다. 손기정 평화마라톤 대회는 일제 강점기 마라톤을 통해 민족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자긍심을 드높인 대한민국 스포츠영웅 손기정 선수의 '광복70년 기념 대회', '제11회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제패 79주년기념 대회'의 취지를 담아 개최된다.

주최측에 따르면 신의주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광복 이후 남한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북한에서는 잊혀진 마라토너였던 남북분단의 피해자인 손기정선수의 아픔을 평화통일을 향한 도전으로 승화한다는 취지로 진행한다. 이번 마라톤 대회는 평화와 통일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느낄수 있도록 올해는 임진각에서 출발해 민통선 일대를 반환하는 코스를 운영 한다.

올해는 국무총리실 산하 광복7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광복70년 정부부처 기념사업'으로 선정됐으며 또한 한국노총 노동절 마라톤 대회를 통합해 국내 최대 규모의 마라톤 행사로 열 예정이다

손기정 평화마라톤대회는 6㎞, 10㎞, Half, Full 등의 구간에 모두 민간인이 접근하기 힘든 민통선 내부를 순환하는 코스로 주최측 관계자는 올해는 3만명 이상 참여 할 것이라고 예상 된다. /최치선 기자

비수술 척추 관절 치료 '강남초이스정형외과병원'

유명 연예인, 고주파 특수 내시경 디스크 시술로 완치
일반 고주파 수술과 다른 진화된 획기적 치료법 개발
최첨단 장비로 10여분 시술… 하루만에 완치해 퇴원

인기 프로그램 '무한도전'의 멤버인 개그맨 정준하씨가 급성 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최근 강남초이스정형외과병원에서 특수 내시경을 이용한 고주파 디스크 치료술을 받았다.

강남초이스정형외과병원에따르면 정준하씨는 당시 2주전 발생한 갑작스러운 요통으로 침을 맞고 견디다가 일주일간의 해외 촬영중에 갑자기 악화된 우측 하지 방사통으로 잠도 거의 못자고 견디다 귀국하자마자 병원을 찾았다. 정준하씨의 상태는 응급으로 촬영한 요추 MRI상 급성 제 5 요추 -제 1 천추간 파열형 추간판 탈출증으로 터진 추간판이 아래로 흘러내려 심하게 신경을 압박해 정상 보행하기 힘들 정도로 심했다.

담당 주치의인 조성태 원장은 "강남초이스정형외과병원에서 수많은 유명 연예인들을 완치시켰던 특수 내시경을 이용한 고주파 디스크 치료술로 국소 마취하에 15분 정도 시술을 해 튀어나온 디스크를 집어넣고 수축시켜 제자리로 밀어 넣었다. 터진 추간판은 신경치료로 동시에 치료해 다리 통증이 즉시 사라지면서 깨끗이 완치돼 당일 퇴원했다"고 밝혔다.

조성태 원장은 "정준하씨의 시술은 통증없이 편하게 잘 치료 됐으며 걷기 힘들정도로 심한 증상이었으나, 고주파 치료후 통증이 사라져서 매우 만족한 상태로 귀가 했다. 시술 직후 방송에 출현 하는 등 향후 방송 활동엔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정준하 씨 사례처럼 5년전부터 강남초이스정형외과병원에서 국내 최초로 시행했던 고주파 특수 내시경 디스크 치료술 또는 고주파 수핵 감압술은 일반적인 고주파 열 치료와는 차원이 다른 진화된 치료법이다.

그 동안의 수많은 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특수 신경 치료 기법을 같이 사용해 고주파 열 치료술은 치료가 힘든 말기 디스크 질환 뿐만 아니라 재발되거나 터진 디스크 또는 디스크 동반된 협착증까지 치료 영역을 넓혀 획기적인 비수술 치료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강남초이스정형외과병원은 스타들을 상업적 광고 홍보모델로 쓰지 않고 실제로 수많은 유명 연예인들이 치료·시술하고 연예인 뿐만 아니라 스포츠 스타 선수들이 찾으면서 유명세를 얻은 병원이다.

원조 아이돌 여가수이면서 요즘 한창 방송 활동중인 원로 가수인 장미화씨 뿐만 아니라 가수 휘성, 런닝맨의 가수 김종국씨등 4명의 멤버들이 비슷한 증상인 요통과 하지 방사통으로 고생하다가 고주파 디스크 시술을 받은 후 증상이 말끔히 해소 돼 현재 방송 활동을 무리 없이 잘하고 있다.



담당 주치의인 강남초이스정형외과병원 조성태 원장(왼쪽)과 개그맨 정준하씨. 조 원장은 내원한 정준하씨를 특수 내시경을 이용한 고주파 디스크 치료술로 국소 마취하에 15분정도 시술을 해 당일 퇴원시켰다.

병원 관계자에 의하면 개그맨 정준하씨는 얼마전에 급성 경추 디스크로 모대학 병원에서 추간판 제거술 및 유합술을 받은후 한동안 방송 활동을 못하였었는데, 그때도 지금처럼 간단하게 허리 디스크와 똑같이 수술 없이 고주파 치료 했으면 좋았을거라고 그때 당시를 많이 아쉬워 했다고 한다.

이처럼강남초이스정형외과병원은 5년전부터 국내에서 최초로 시행했던 고주파 특수 내시경 디스크 치료술 또는 고주파 수핵 감압술로 유명세를 얻은 비수술 척추 관절 전문 병원이다. 강남초이스정형외과병원은 개원 5년만에 강남의 메카이며 중심인 선릉역 6번 출구에 최첨단 진단과 치료 의료장비·감염에 대한 예방을 위해 무균 수술실을 갖추는등 시대의 흐름에 맞게 최첨단 비수술 중심의 정형외과 병원을 얼마전 개원했다.

조성태 병원장은 "강남초이스정형외과병원의 유명한 비수술 척추 치료 방법에 다양한 비수술 관절 치료를 개발하고 접목시켜 수술 없이 관절과 척추 질환을 고치겠다는 신념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속의 초일류 병원으로 거듭 성장하고자 강남의 중심인 선릉역에 개원했다"고 밝혔다.

강남초이스정형외과병원의 고주파 디스크 치료는 일반적인 고주파 열 치료와는 차원이 다른 진화된 치료법을 개발했다. 또한 그 동안의 수많은 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특수 신경 치료 기법을 같이 사용해 고주파 열 치료술로 치료하기 힘든 말기 디스크 질환 뿐만 아니라 재발되거나 터진 디스크 또는 디스크 동반된 협착증까지 치료 영역을 넓혀 획기적인 비수술 치료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조성태 원장은 "일반적으로 고주파 수핵 감압술은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거의 없으며 보통 증상이 심한 급성 중기 디스크나 말기 디스크에 적용이 되지만 실제로 많은 경험과 숙련된 전문 척추 외과 의사가 아니면 효과를 볼수가 없고 오히려 악화 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강남초이스정형외과병원은 1년에 수천여명의 환자가 고주파 디스크 치료를 시행하고 해외에서 환자들이 찾아오고 선진국 의사들이 고주파를 배우러 오는 국내에 선 독보적인 고주파 치료 전문 병원이다.

경험이 많은 숙련된 척추 치료 원장들이 15분이상 고주파 열 치료를 꼼꼼하고 정확하게 치료한다. 따라서 고주파 치료 단독만으로도 환자들의 치료 만족도가 매우 높다.

결국 대부분의 척추 전문 병원들이 비수술 척추 치료에 있어서 안전하고 재발이 거의 없는 고주파 디스크 치료에 경험도 부족하고 치료에 대한 자신이 없고 그래서 통증 치료 목적과 비용을 올리기 위해 끼워 넣기 식으로 꼬리뼈 레이저 또는 신경 성형술등을 무리하게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 원장은 "이런 무리한 수술이 아픈 환자들의 마음에 더욱 더 상처를 주고 있다며, 양심적이고 정직한 의사를 잘 만나야 한다"고 전했다.

◇문의: 서울대점(02-875-2200), 강서점(02-2698-2200), 강남점(02-539-2250)

/최치선 기자 chisunti@metroseoul.co.kr

힘든 세상, 희망까지 뺏을 순 없죠

영화 '베테랑' **류승완** 감독



류승완(41) 감독이 액션영화 '베테랑'으로 3년여 만에 돌아왔다. 오는 5일 개봉하는 '베테랑'은 서도철(황정민)을 비롯한 광역수사대 형사들과 재벌 3세 조태오(유아인)의 대결을 그린 작품이다. 무겁고 비장했던 전작 '부당거래'와 '베를린'과 달리 통쾌함과 유쾌함이 두 시간의 러닝타임을 가득 채우고 있다.

류승완 감독은 전작들을 작업하면서 떠오른 여러 아이디어들을 바탕으로 '베테랑'의 시나리오를 썼다. '부당거래'를 마쳤을 즈음 관심을 갖게 된 중고차 범죄 이야기, 그리고 '베를린'을 마친 뒤 영화 작업의 부담감을 잊기 위해 보았던 고전 카체이스 영화가 그 출발점이었다.

"앞뒤 안 재는 저돌적인 인물이 주인공인 시원한 카체이스 영화를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산도 많이 들고 준비할 것도 많아서 힘들겠더라고요(웃음). 그때 이미 광역수사대 형사들의 캐릭터는 만들어져 있었어요. 오랫동안 취재해온 형사들, 그리고 배우 황정민의 인간적인 면모가 더해져서 완성된 캐릭터였죠. 그렇다면 이들이 누구와 싸우면 좋을까 고민했죠. 그렇게 재벌 3세 캐릭터를 떠올리게 됐어요."

영화 속 조태오는 류승완 감독의 '발로 뛰는' 취재로 탄생한 인물이다. 실제 재벌 3세를 직접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류승완 감독은 이들과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다단계'처럼 만났다. 기자, 양복 재단사, 그리고 노동자까지 다양한 인물들이 각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재벌 3세의 여러 모습이 조태오라는 인물 속에 녹아들었다.



영화는 조태오를 선악의 개념 자체가 없는 인물로 묘사한다. 개인보다 사회 시스템에 더 관심이 많은 류승완 감독의 주제의식이 반영된 결과다. "조태오는 타고난 악당이 아닌 만들어진 악당이라고 생각해요. 성장해온 환경, 즉 경제 권력 시스템이 조태오를 이렇게 만든 것이죠. 서도철과 조태오의 싸움은 궁극적으로는 서민과 경제 권력을 작동시키는 어떤 집단의 싸움이에요. 견고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 시스템이지만 부당함에 저항하는 개인의 용기와 양심이 그 견고함에 균열을 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 형사와 재벌 3세 대결 통쾌한 액션으로 담아
>
> 인간·시스템 관계 고민 용기와 양심이 중요해

자본가와 노동자의 문제, 그리고 정치·경제·언론의 유착 관계 등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베테랑'은 '부당거래'와 닮아 있다. 다만 주제를 전달하는 태도가 다르다. 류승완 감독은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풀어주는 좋은 선생님처럼 명확한 방식으로 주제를 전달하고 싶었다"고 그 의도를 설명했다. 그렇게 '베테랑'은 류승완 감독의 필모그래피 속에서 가장 통쾌하면서도 인간적인 따뜻함이 느껴지는 작품이 됐다.

"예전에는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을 버릴 정도의 세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희망까지 버리고 있어요. 젊은 세대에게도 '해봐야 안 된다'고 말하고 있죠.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이 힘들어도 개개인의 희망을 뺏을 필요는 없잖아요. 개인의 행복과 삶까지 무너뜨리면서 얻는 공동체의 행복은 결국 허상이니까요."

'베테랑'을 마친 류승완 감독은 차기작으로 '베를린'의 속편, 그리고 일본 하시마를 무대로 한 '군함도' 등 여러 아이디어를 놓고 고심 중이다. '베테랑'의 속편 아이디어도 생각하고 있다. 류승완 감독은 "아홉 편의 장편영화를 만들어 보니 이제 내가 어떤 패턴으로 움직이는지 알게 됐다"며 "분명한 건 다음 영화는 전작과 다른, 전작보다 더 좋은 작품이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손진영 기자 son@

'미션5' '암살' 극장가 쌍끌이 흥행

'미니언즈' 등 애니메이션도 강세

영화 '미션 임파서블: 로그네이션'(이하 '미션 임파서블5')과 '암살'이 극장가 쌍끌이 흥행을 이끌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미션 임파서블5'는 개봉 첫 주말인 1일 토요일 하루 동안 76만6546명의 관객을 모으며 박스오피스 정상을 지켰다. 또한 2일 오전 9시30분 기준으로 누적 관객수 200만을 돌파했다.

'미션 임파서블5'는 지난 30일 개봉과 동시에 박스오피스 정상에 올랐다. 개봉 첫 날인 30일 47만1826명의 관객을 모은데 이어 31일에는 49만8949명을 동원했다. 30일에는 주연 배우 톰 크루즈가 한국을 찾아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암살'도 흥행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1일 토요일에는 58만5705명의 관객을 모아 박스오피스 2위 자리를 지켰다. 또한 2일 오전 7시30분 기준으로 누적 관객수 619만을 넘어서 '연평해전'을 제치고 올해 개봉 한국영화 중 현재까지 최고 흥행작이 됐다.


미션임파서블5


암살

여름방학을 맞이해 개봉한 애니메이션의 강세도 두드러졌다. '미니언즈'는 3위를 차지했다. 1일 하루 동안 23만9158명의 관객을 모았다. 4위에 랭크된 '인사이드 아웃'은 2일 400만 관객을 돌파했다. '극장판 요괴워치'와 '고녀석 맛나겠다2'는 각각 5위와 6위로 그 뒤를 이었다.

/장병호 기자

star bag

주말극으로 안방 데뷔



배우 **강한나**가 MBC 새 주말극 '엄마'로 안방에 데뷔한다. 톡톡 튀는 성격의 부잣집 딸 강유라 역을 맡았다. 미워할 수 없는 쿨한 매력을 갖춘 캐릭터로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엄마'는 오는 9월 방송 예정이다.



YG와 3년간 재계약

배우 **차승원**과 힙합 그룹 **에픽하이**가 YG엔터테인먼트와 3년 재계약을 맺었다. 이들은 소속사와 함께 서로 '윈윈'하는 결과물을 만들며 신뢰를 쌓아왔다. 이견 없이 기쁜 마음으로 재계약을 결정했다.



'뮤직뱅크'로 신곡 공개

그룹 **샤이니**가 신곡 '매리드 투 더 뮤직(Married to the Music)'의 무대를 오는 7일 KBS2 '뮤직뱅크'를 통해 최초로 공개한다. 펑키 디스코 장르의 곡으로 세계적 안무가 토니 테스타가 참여했다.

신곡 '마이 넘버' 발표



래퍼 **치타**가 신곡 '마이 넘버(My Number)'를 3일 자정 발표했다. 치타의 이야기를 고스란히 녹여낸 직설적인 가사가 돋보이는 노래다. 디지털 싱글에는 '마이 넘버' 외에도 '카타르시스'가 함께 수록됐다.

베니스영화제 경쟁 초청



배우 **박유환**이 출연한 할리우드 영화 '이퀄스'가 베니스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 초청됐다. 크리스틴 스튜어트, 니콜라스 홀트와 함께 일하는 동료로 비중 있는 조연을 연기했다. 현재는 영화 '무수단'을 촬영하고 있다.

여풍당당… 이달 극장가 '여배우들' 활약 풍성

엄정화·전도연·이정현·한효주 흥행 대결
무협사극·코미디·판타지 로맨스 등 다양


전도연


이정현

여배우들의 다양한 활약을 담은 작품들이 8월 극장가를 찾는다. 무협 사극·가족 코미디·잔혹 코미디·판타지 로맨스 등 색다른 장르로 여배우들의 새로운 변신을 담은 작품들이다.

오는 13일에는 엄정화 주연의 '미쓰 와이프'가 개봉한다. 잘 나가는 변호사로 화려한 싱글 라이프를 살고 있던 여자 연우가 우연한 사고로 남편과 아이 둘이 있는 아줌마로 한 달 동안을 대신 살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엄정화의 코믹 연기가 빛을 발한다는 평가다. 영화를 연출한 강효진 감독은 "엄정화가 극적으로 변하는 상황 속에 놓인 캐릭터를 놀라운 설득력으로 표현했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배우 전도연은 무협 사극 '협녀, 칼의 기억'으로 같은 날 스크린을 찾는다. 고려 말을 배경으로 서로 뜻이 달랐던 세 검객의 피할 수 없는 숙명을 그린 영화다.

극중에서 전도연은 맹인 검객 월소를 연기했다. 맹인 검객 연기를 위해 3개월 동안 와이어 액션, 검술 등의 액션 기본기를 익혔다. 우아함을 표현하고자 고전 무용 연습도 병행했다.

배우 이정현이 열연한 코믹 잔혹극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도 13일에 개봉한다. 한 여자의 파란만장한 인생 역경을 담은 작품이다. 이정현은 주인공 수남을 연기했다.

이정현은 수남을 그동안 연기해온 캐릭터 중 가장 강렬한 캐릭터로 꼽았다. 또한 데뷔작 '꽃잎'이 아닌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의 이정현으로 기억되고 싶다는 바람도 전했다.

오는 20일에는 배우 한효주 주연의 판타지 로맨스 '뷰티 인사이드'가 개봉한다. 자고 일어나면 매일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남자의 이야기라는 독특한 설정의 영화다.

21인 1역 캐스팅으로 제작 단계부터 화제가 됐다. 한효주는 남자 주인공 우진과 사랑에 빠지는 여자 이수 역을 맡았다. 한효주는 "'겉모습에 상관없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메시지가 굉장히 좋았다. 새로운 배우를 만나는 낯선 마음을 간직한 채 촬영에 임했다"며 소감을 전했다.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TV 하이라이트

머슬녀 전성시대

◆ MBC 'MBC스페셜' 오후 11시15분



남성미의 상징이었던 근육을 여성들도 탐하기 시작했다. 세계 머슬마니아 대회에서 동양인 최초로 5위에 오른 유승옥, 미식축구 국가대표팀 스트렝스 코치 예정화 등이 대표적이다. 스스로 만족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몸을 가꾸는 머슬녀들의 이야기를 통해 변화되고 있는 우리 시대의 여성상을 찾아본다. 피트니스 센터를 찾는 여성들을 통해 근육의 매력에 빠진 그녀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정리=하희철 기자 bbuheng@

◆ KBS2 '안녕하세요'

오후 11시10분

3승을 차지한 '갈아치우는 남자'의 4승 달성을 가로막을 도전자들이 등장한다. 기가 센 여동생들 때문에 고민인 20대 남자는 자기가 하인이 된 것 같다며 하소연을 한다.



◆ TBC '냉장고를 부탁해'

오후 9시40분

화려한 싱글 남녀 김영철, 최화정이 냉장고를 공개한다. 김영철은 보물 1호 미역을 이용한 요리와 화이트 와인에 어울리는 요리를 셰프들에게 부탁한다.



◆ JTBC '비정상회담'

오후 11시

최진기 강사와 함께 세계의 경제를 주제로 토론을 벌인다. G11은 사상 최악의 경제 이슈인 그리스 디폴트 사태로 인해 벌어진 각 나라의 영향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일 (월)

지상파	KBS1	KBS2	MBC	SBS	EBS1	EBS2
18시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2TV 저녁	10 생방송 오늘 저녁	00 생방송 투데이	00 톡! 톡! 보니 하니 1 (2896회) 05 출동! 슈퍼윙스 25 내 친구 아서 45 발명이 팡팡!	00 하늘 놀이터 (재) 25 Real Fun World1 (재) 30 헬로 코코몽(1·2) (재) 50 Real Fun World2 (재) 55 곰디와 친구들(영어더빙·한국어) (재)
19시	00 KBS 뉴스 7 30 우리말 겨루기	50 오늘부터 사랑해 (83회)	15 위대한 조강지처 (36회) 55 MBC 뉴스데스크	20 돌아온 황금복 (40회)	0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30 EBS 뉴스 5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재)	25 꼬마 철학자 휴고(영어) (재) 35 Real Fun World3 (재) 40 꼬마 철학자 휴고(한국어) (재) 50 몬스터 수학나라(영어) (재)
20시	25 가족을 지켜라 (60회)	30 생생정보 (1회) 55 위기탈출 넘버원	55 딱 너 같은 딸 (56회)	00 SBS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40 다큐 오늘 50 세계 테마 기행	00 Real Fun World4 (재) 10 몬스터 수학나라(한국어) (재) 20 스쿨랜드–절대비법 30 공부의 왕도 (재)
21시	00 KBS 뉴스 9		30 리얼스토리 눈		30 한국기행 50 EBS 다큐 프라임	00 다큐 오늘 10 EBS 스타 강사 특강
22시	00 가요무대	00 너를 기억해 (13회)	00 화정 (33회)	00 미세스캅 (1회)	45 달라졌어요	00 영화로 배우는 영어 <아라비아의 로렌스 1>
23시	00 KBS 뉴스라인 40 TV, 책을 보다	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5 MBC 다큐스페셜 / (2안)	15 힐링캠프 500인	35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24시	30 우리 생애 마지막 여름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55 스포츠 이야기 운동화 2.0 (재)	15 MBC 뉴스 24 35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35 나이트라인	05 지식채널e (재) 10 EBS 인문학 특강	30 K-POP으로 배우는 다문화 한국어 (재)
케이블	JTBC	tvN	올리브TV	내셔널지오그래픽	채널CGV	스포츠
18시	30 비정상회담 (56회) (재)		00 식샤를 합시다 2 (6회)			◆ 해외야구 02:10 피츠버그 vs 신시내티 04:05 샌프란시스코 vs 텍사스 05:10 LA에인절스 vs LAD 
19시	55 JTBC 뉴스룸	40 리틀빅 히어로 (45회) (재)	20 유미의 방 (5회)	00 나는 자연인이다 (22회)	40 페르시아의 왕자:시간의 모래	
20시	50 JTBC 뉴스룸	40 명단공개 (74회)	00 오늘 뭐 먹지? (85·84회)	00 최후의 지상 낙원, 부탄		
21시	40 냉장고를 부탁해 (38회)	40 집밥 백선생 (11회) (재)	05 한식대첩 3 (11회)	00 옐로스톤의 늑대의 여왕		
22시			25 MAPS (6회)	00 사이언스 오브 데인저 (9·10회)	00 스쿨 오브 락	
23시	00 비정상회담 (57회)	00 신분을 숨겨라 (15회)	30 2015 테이스티로드 (24회)	00 <사상 최악의 참사> 텍사스 주 웨이코 참사		
24시	30 화이트 스완 (10회)	20 코미디 빅리그 (131회) (재)	30 오늘 뭐 먹지? (82회)	00 나는 자연인이다 (22회)	20 블레이드 3	

여자축구, 주말 장식한 빛나는 승전보

한국 여자 대표팀, 동아시안컵 중국에 1-0 승
英 첼시, 지소연 결승골로 FA컵 첫 우승 기쁨



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FA컵 첼시 레이디스와 노스카운티와의 결승전. 결승골로 팀에 우승을 안긴 첼시의 지소연(가운데)이 우승컵을 들고 기뻐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주말에 한국 여자축구가 빛나는 활약을 펼쳤다.

윤덕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여자 대표팀은 1일 중국 우한 스포츠 센터에서 열린 중국과의 1차전 경기에서 1-0으로 승리했다. 전반 27분 정설빈(현대제철)의 득점이 승리를 견인했다.

한국 여자 대표팀은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열린 국제축구연맹(FIFA) 여자 월드컵에서 사상 최초로 16강에 올랐던 기세를 이날 경기에 서도 이어 갔다. FIFA 랭킹 17위인 한국은 14위 중국을 맞아 전반 내내 주도권을 놓치지 않고 우세한 경기를 펼쳤다.

전반 27분 선제골이 나왔다. 상대 수비가 어설프게 공을 걷어내는 상황을 놓치지 않고 공을 가로챘다. 이어 페널티 지역 약간 오른쪽 지점에서 공을 잡은 정설빈이 강력한 왼발 중거리슛으로 중국 골문을 갈랐다.

전반 슈팅 수 7-1, 유효 슈팅 수는 3-0으로 한국이 압도적이었다. 그러나 후반부터는 경기의 양상이 달라졌다. 중국이 여러 차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내며 동점 기회를 엿본 것이다. 다행히 골키퍼 김정미가 선방해 무실점했다.

한국, 중국, 일본, 북한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우리나라는 이날 일본(4위)을 4-2로 꺾은 북한(8위)과 나란히 1승을 기록했다. 그러나 골득실에서 뒤져 2위에 올랐다. 4일 같은 장소에서 일본과 2차전을 치른다.

영국 첼시 레이디스 소속 지소연은 결승골로 팀에 FA컵 첫 우승을 안겼다. 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잉글랜드 축구협회(FA)컵 결승전 노스카운티와의 경기에서 첼시는 전반 37분 지소연의 골로 1-0으로 우승했다.

지소연은 공격형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했다. 전반 37분 페널티 지역 안에서 팀 동료 에니오카 알루코의 패스를 받은 뒤 상대 수비 2명을 제치고 침착하게 득점에 성공했다.

1970년 여자 FA컵 창설 이래로 첼시 레이디스가 우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12년 결승에 진출했으나 버밍엄 시티와의 승부차기 접전 끝에 패했다.

영국 BBC 방송은 이날 경기가 끝난 뒤 "'작은 마법사'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진 지소연이 잉글랜드 축구 역사에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켰다"고 평가했다.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강정호, 시즌 8호 홈런 터졌다

추신수는 개인 통산 600득점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강정호가 2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의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에서 열린 신시내티 레즈와의 방문 경기에서 4회초 솔로 홈런을 친 뒤 홈으로 들어오고 있다. /AP 연합뉴스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강정호(28)가 시즌 8호 홈런을 터뜨렸다.

강정호는 2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에서 열린 신시내티 레즈와의 방문 경기에서 5번 타자 유격루로 선발 출전해 4타수 1안타(1홈런) 1타점을 기록했다.

0-1로 뒤진 4회초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강정호는 신시내티의 선발 레이셀 이글레시아스의 5구째 시속 82마일(132㎞)짜리 슬라이더를 잡아당겨 좌측 담을 넘기는 비거리 128m의 솔로포를 기록했다.

앞서 강정호는 2회초 첫 타석에서 선두타자로 나와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1-3으로 뒤진 7회초에는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이글레시아스의 2구째 시속 93마일(150㎞)짜리 싱커를 공략했다. 하지만 투수 앞 땅볼로 돌아섰다.

2-4로 뒤진 9회초 선두타자로 타석에 들어선 강정호는 신시네티의 마무리 투수 아롤디스 채프먼과 맞붙었다. 볼 카운트 2볼-1스트라이크에서 4구째 시속 99마일(159㎞)짜리 포심 패스트볼을 받아쳤지만 펜스 불과 몇 발자국 앞에서 중견수에 잡혔다.

강정호는 지난 5월 30일 이후 두 달여 만에 3할 타율 재진입을 노렸지만 시즌 타율을 0.299로 유지했다.

피츠버그는 3-4로 뒤진 9회말 만루까지 갔지만 추가 득점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텍사스 레인저스의 추신수(33)는 2루타 2득점을 기록하며 개인 통산 600득점을 돌파했다.

2일 미국 텍사스 주 알링턴의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홈 경기에서 추신수는 7번 타자 우익수 선발로 출전해 4타수 1안타 1볼넷 2득점 1삼진을 기록했다.

추신수는 이날 장타와 동점, 역전 득점 등을 기록하며 팀의 승리를 위해 힘을 보탰다. 그러나 팀이 7-9로 재역전패를 당하면서 빛을 보지 못했다.

/장병호 기자

레버쿠젠, 베로나에 3-1승

손흥민 전반 활약
류승우는 후반 투입



독일 프로축구 레버쿠젠의 손흥민. /AP 뉴시스

독일 프로축구 레버쿠젠이 이탈리아 키에보 베로나와의 친선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다.

레버쿠젠은 2일(한국시간) 독일 레버쿠젠의 바이아레나에서 열린 베로나와의 친선 경기에서 3-1로 승리했다.

레버쿠젠의 손흥민은 선발로 출전해 전반 45분 동안 경기를 뛰었다. 아드미르 메흐메디, 율리안 브란트, 카림 벨라라비 등 공격진과 부지런히 찬스를 만들었지만 골맛은 보지 못했다. 후반전 시작과 함께 슈테판 키슬링과 교체됐다.

류승우는 후반 20분 브란트 대신 교체 투입돼 경기가 끝날 때까지 활약을 펼쳤다.

레버쿠젠은 전반 5분 메흐메디가 선제골을 터뜨리며 앞서나갔다. 그러나 전반 39분 파울-호세 음포쿠에게 동점골을 내줬다.

전반 41분 외메르 토프락이 결승골을 넣었다. 이어 레버쿠젠은 후반 36분 키슬링이 쐐기골을 꽂았다.

/장병호 기자

기성용 풀타임 활약했지만…

스완지시티, 데포르티보와 친선 경기 무승부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스완지시티의 기성용. /AP 연합뉴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의 스완지시티가 스페인 데포르티보 라 코루냐와의 친선전에서 0-0 무승부를 기록했다.

스완지시티는 2일(한국시간) 영국 웨일스의 리버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데포르티보와의 프리시즌 친선전에서 승부를 내지 못하고 득점 없이 비겼다.

스완지시티의 기성용은 중앙 미드필더로 나서 풀타임을 뛰었다. 몇 차례 위협적인 패스를 내줬지만 공격 포인트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스완지시티는 이날 경기를 홈페이지에 설명하면서 "기성용이 후반에 시도한 슈팅이 데포르티보의 골키퍼의 환상적인 방어에 막혔다"며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날 무승부로 스완지시티는 2015-2016 프리미어리그 개막을 앞두고 치른 6차례 경기에서 1승4무를 기록하며 무패로 프리시즌 평가전을 마무리했다.

스완지시티는 한국시간으로 9일 오전 1시30분 영국 런던 스탬퍼드 브리지에서 '디펜딩 챔피언' 첼시와 2015-2016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을 치른다.

/장병호 기자

Shin Dong Joo, Confident of Winning General Meeting of Stockholders Deciding Rights

신동주, 롯데홀딩스 주총 의결권 확보 자신

Shin Dong Joo, former Lotte holdings Vice President stated on the July 30th at the Press c onference that he will go agai nst his brother Shin dong Bin, Lotte group President face to f ace.

Former President Shin state d that even if former President Shin has only 2% of the voting right, but if he adds the emplo yee supporters rights, he will h ave a total of two thirds of the right.

Shin Dong Joo stated that S hin Dong Bin's voting rights in cluding the rights of Lotte hol



롯데 일가가 신동주·동빈 형제 간의 경영권 분쟁을 놓고 가족회의를 한 지난달 31일 서울 성북구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집에 불이 켜져 있다. /연합뉴스

dings or Gwang Woon compan y is less than his.

Former president Shin em phasized that the down-sizin g of Lotte holdings board me mbers which was thought to be under former Presidint Sh in's order was actually done by Shin Gyuk Ho general Pr esident.

Lotte group has taken an off icial stance on this matter and stated that this is apart from t he truth.

As Shin Dong Bin and Shin Dong Joo's battle to win the m ajority's vote of the general sh are holders is becoming mroe i ntense, both are puting their ut most effort and striving for vic tory.

/파고다어학원 영어회화 Chris Kim(김윤관) 강사

신동주(61)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지난달 30일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동생 신동빈(60) 롯데그룹 회장에 맞대응을 예고했다.

신 전 부회장은 "내 의결권은 2%에 못 미치지만 직원 지주회 의결권 32%를 합지면 전체의 3분의 2가 된다. 신동빈의 의결권은 롯데홀딩스나 광윤사 모두 나보다 적다"고 강조했다.

신 전 회장은 자신의 주도하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롯데홀딩스 이사진 해임이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지시에 따른 것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은 공식 입장을 내고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했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동빈 형제 간 분쟁이 롯데홀딩스 주주총회 표 대결 양상으로 확대되면서 양측은 표 확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4		2	7			
9			5					
	2		3			8		
5		3		9	1	2		
		1		6		4		
		2	8	4		9		3
		8			9		4	
					8			1
			6	7		5		

		5			8			2
				3	1		6	
		3	6			4		
	9	2					3	
	4			9			7	
	7					2	9	
		7			5	8		
	2		1	8				
4			9			6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스도쿠 정답

1	8	4	9	2	7	3	6	5
9	3	7	5	8	6	1	2	4
6	2	5	3	1	4	8	7	9
5	4	3	7	9	1	2	8	6
8	9	1	2	6	3	4	5	7
7	6	2	8	4	5	9	1	3
3	7	8	1	5	9	6	4	2
2	5	6	4	3	8	7	9	1
4	1	9	6	7	2	5	3	8

9	6	5	7	4	8	3	1	2
2	8	4	5	3	1	9	6	7
7	1	3	6	2	9	4	8	5
8	9	2	4	1	7	5	3	6
5	4	6	3	9	2	1	7	8
3	7	1	8	5	6	2	9	4
1	3	7	2	6	5	8	4	9
6	2	9	1	8	4	7	5	3
4	5	8	9	7	3	6	2	1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취업낙방·이별… 삼재·아홉수라 그런가요?
날 삼재 시기… 대체 물상·기도로 피해야

h20jw 여자 87년 12월 15일 양력 13시
남자 84년 11월 20일 15시

Q 삶이 너무 고달파서 글 써봅니다. 졸업 후 몇 년 동안 아무리 애를 써도 되지 않는 취업, 남자친구와의 헤어짐까지 어렵기만 하네요.

제가 뭘 하려고만 하면 왜 그렇게도 안 되는지 지독히도 운이 없다고 자꾸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 주변에서도 다들 삼재에 아홉수라 그렇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 게 있나요? 그래서 그런가요? 그럼 내년엔 좀 괜찮을까요?

그리고 힘든 시기에 이별까지 겪으니 정말 쉽지가 않네요. 서로 너무 안 맞는다고 항상 티격태격했지만 그럼에도 잡고 싶은데 이 남자와 저는 정말 인연이 아닐까요? 도와주세요. 답답하네요.

A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 좋지 않은 일이 반복되거나 일마다 꼬여서 어려움을 당할 때 흔히들 아홉수 또는 '삼재가 들어서'라는 말을 합니다. 맞는 말들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죽을 때 까지 수없이 많은 재난을 겪게 되는데 그것을 삼재(三災)라 하고 삼재와 함께 여덟 가지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을 팔난(八難)이라고 합니다.

삼재는 천재(天災:천재지변)와 지재(地災:교통사고나 상해), 인재(人災:사람으로 인한 사고나 보증, 사기)가 있는데 이것과 같은 것으로 역학에서는 삼살(三殺)을 흉하게 여기는데 겁살(劫殺), 지살(地殺), 천살(天殺))을 말합니다.

삼재 삼살들의 악영향을 일부 학자들이나 어느 단체에서는 무시하기도 하는데 천만의 말씀으로 사주에 적용하는 법을 모르고 자신들의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불운이나 행운으로 설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하가 삼재 중에 날 삼재(나가는 삼재)에 있어서 주변상황이 엉클어져 복잡한 시기를 맞이하지만 피해갈 수 있는 대체 물상이나 기도로 대신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궁합은 자신의 생년월일과 상대방을 견주어 보는 것인데 궁합을 보는 방법은 매우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궁합이 맞는 상대를 찾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합이 나빠도 한 부부가 백년해로를 하기도 하고, 좋다고 한 궁합이 나중에는 결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혼은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가면서 하나의 원을 이루는 것이므로 두 사람의 노력이 항상 필요 한 것이며 좋은 것이 나쁘다고 한 것보다 많으면 결혼하여 고쳐가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면 운기가 서로가 견디기 어려움이 있어서 흔한 말로 표현하면 둘 다 밑지는 결혼입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8월 3일 (음 6월 19일) 힐링운세(www.healingunse.com) 060-800-8877



48년생 큰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60년생** 너무 신경쓰지 않아도 바라는 대로 이뤄집니다. **72년생** 오늘 하루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84년생** 윗 사람을 공경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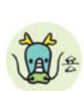
49년생 좋은 결과가 있겠습니다. **61년생** 모든게 이뤄지고 앞길도 밝습니다. **73년생** 하늘의 뜻이 나의 뜻이니 쉽게 이루어 지겠습니다. **85년생** 노력에 결실이 있겠습니다.



50년생 힘이 부족하면 이룰 수 없습니다. **62년생** 긴장을 풀지 마세요. **74년생**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 같으니 천생배필 만나겠습니다. **86년생** 여행을 하고자 한다면 망설이지 말고 떠나세요.



51년생 사방팔방에 운이 열렸습니다. **63년생** 좋은 기회는 여러 번 오지 않습니다. **75년생**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세요. **87년생** 마음만 가득할 뿐 용기가 없어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52년생 일을 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64년생** 나중에 후회할 일을 만들지 마세요. **76년생** 억지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88년생** 친구와 의논 하세요.



53년생 다른 일을 기획해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65년생** 다음 기회로 미루어 보도록 하세요. **77년생** 일을 구해도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89년생** 큰 낙담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54년생 서두르면 눈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66년생** 뜻 밖의 손실이 생깁니다. **78년생** 이루어 지지 않는 일을 잡고 있지 마세요. **90년생**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해가 있습니다.



55년생 뾰족한 것을 조심하세요. **67년생** 좋거나 나쁘지 않고 대체로 원만합니다. **79년생** 문제가 있지만 능력있는 윗사람을 만나 해결할 수 있습니다. **91년생** 시비하지 마세요.



56년생 사람과의 교제에 구설이 있으면 안됩니다. **68년생** 하늘이 복을 주고 행하려 하니 기쁨이 증가 합니다. **80년생** 큰 돈을 만지게 됩니다. **92년생** 진득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57년생 명성과 이익이 있겠습니다. **69년생** 때를 만나 움직이니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81년생** 할 일은 많은데 몸이 하나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93년생** 조급해 하지 마세요.



58년생 지혜란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거듭나는 법입니다. **70년생** 노력해서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82년생** 운이 따르지 않으니 실망하지 마세요. **94년생** 구관이 명관입니다.



59년생 서둘러서 좋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71년생** 순리에 맞게 차근차근 시행하세요. **83년생** 자신을 되돌아 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95년생** 옛 친구를 멀리 하지 마세요.

현실과 동떨어진 '예술인 복지법' 개정하려면



뉴스룸에서

김 민 준
<문화스포츠부 부장>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이 예술인들의 지위와 권리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하고자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들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0월쯤 공청회를 거쳐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현행 예술인 복지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사회안전망 등 복지지원을 통해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009년 발의됐다가 2011년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이 영양결핍으로 죽고나서야 통과돼 '최고은법'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예술인 복지법이 시행되고는 있지만 문화예술 현장에서는 임금미지급·무계약 사업 진행 등 불합리한 관행이 여전합니다. 또 예술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제출해야 할 관련서류가 너무 많고 복잡합니다. 예술 활동을 증명한다는 것도 예술성을 심의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큽니다.

특히 예술인 복지법의 일환인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예술인들의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줍니다. 자신이 정말 가난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장된 기금마저 지급을 미루기도 합니다. 실제로 올해 긴급복지지원사업 교부금은 상반기까지 미지급되다가 지난 6월 지병과 생활고로 배우 김운하와 판영진이 잇따라 유명을 달리하며 세상이 떠들썩해지자 지급되기도 했습니다.

문화예술 현장에서는 예술인 복지법을 개정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개선되어 한다고 말합니다.

우선 예술인에 대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술 활동을 증명해야 하는 막연한 정의가 아니라 종사가 개념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정의를 내려 예술인에 대한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 사회보장 중심의 예술인 복지법이 마련되야 합니다. 고용 불안과 임금 미지급 사태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야 한다는 것입니다. 4대 보험과 같은 기본적인 조치도 한 방법입니다.

예술인 복지와 관련해 현장업무를 담당하는 예술인복지재단의 독립성도 강화되야 합니다. 기재부나 문체부의 결정을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부분 권한과 책임이 주어져야 합니다. 예술인복지재단도 기재부나 문체부가 기금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합니다.

복지 개선을 위해서는 예술인들의 조직화도 필요합니다. 일반 근로자들의 노조와 같은 개념입니다. 재원 조성과 관련해서도 정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후원금이나 개인 기부금을 받는 등 다양한 방법이 모색돼야 합니다.

'롯데 형제의 난' 돈은 피보다 진했다



기자 수첩

정 은 미
<생활유통부 기자>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롯데그룹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신동주·동빈 간 '형제의 난'을 보면 피보다 더 진한 것이 존재하는 듯싶다. 그것은 바로 '돈'이다.

롯데그룹의 '형제의 난'은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진실게임을 넘어 폭로전, 전면전으로 가고 있는 양상이다.

형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지난 27일 90세가 넘은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을 앞세워 동생인 신동빈 회장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신 회장의 반격으로 실패했다.

이 일로 일본에서 자수성가한 대표적인 기업인으로 분류됐던 신격호 총괄회장은 회사를 창업한 지 67년 만에 둘째 아들의 손에 강제퇴진 당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후 신 전 부회장과 신 회장은 연일 아버지가 자신의 편이라고 서로 정통성과 실적을 언급하며 싸움을 벌이고 있다. 보고 있는 대부분의 국민이 부끄러울 정도다.

재벌가들의 상속을 둘러싼 싸움은 사실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현대, 두산, 금호, 한진 등의 국내 재벌 들은 경영 승계 과정에서 온갖 내홍으로 얼룩졌다.

재벌닷컴과 재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자산 기준 40대 재벌그룹에서 지금까지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일어난 곳은 모두 17곳이었다. 재벌 2곳 중 1곳 가까이는 혈족 간에 재산이나 경영권 다툼을 벌인 셈이다.

반복되는 재벌가 싸움의 원인은 우리나라 재벌의 후진적인 지배구조 때문이란 지적이다. 적은 지분으로도 그룹 전체를 좌지우지하다 보니 경영권 세습에 피보다 돈이 앞설 수밖에 없는 진흙탕 싸움이 된다는 얘기다.

재벌들이 지금의 체제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경영권 승계 과정도 누구나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투명하고 깔끔해야 한다.

인사

■ 기획재정부
▷서기관 승진 △예산관리과 김대은 △법사예산과 권기정
■ 국토교통부
△수원국토관리사무소장 남상현
■ 해양수산부
▷국장급 전보 △해운물류국장 박경철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전기정
■ 보건복지부
▷국장급 전보 △질병관리본부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 김원종 △질병관리본부 생명의과학센터장 윤현덕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교육훈련 파견근무 곽숙영
■ 농림축산식품부
▷국장급 전보 △농업·농촌 가뭄대응 종합대책 T/F 지원근무 김대근 △대변인 민연태 △식품산업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허태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이재욱 △식품산업정책실 창조농식품정책관 남태헌
■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 전보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최병구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관 우상일 △대한민국예술원 예술원사무국장 김상욱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 자료운영부장 김성일 △주일본국대사관 공사참사관 겸 문화원장 김현환
■ 한국농어촌공사
▷상임이사 임용 △부사장 김용수 △농어촌개발본부이사 변용석 ▷1급 전보 △전북지역본부장 김학원 △기술안전품질원장 이명준 △지하수지질처장 김철수
■ 한국자산관리공사
△ 비서실장 김원대 △경영지원부장 김기덕 △정보시스템실장 이종국 △정보보안실장 최경숙 △대전충남지역본부장 이진일 △인재개발원관리실장 박정환 △대구경북지역본부 포항지부장 문희석 △충북지역본부 충주지부장 이희준 △광주전남지역본부 제주지부장 이완석 △전북지역본부 군산지부장 이광재
■ 한국가스공사
▷전보 및 보임 △기획본부장 김점수 △영업본부장 박인환 △해외사업본부장 임종국 △생산본부장 고수석 △공급본부장 장진석 △기술본부장 양영명
■ 제주시
▷지방서기관급 전보 △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지방사무관급 승진 △공보실장 김덕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홍종택 △서부보건 소장 서정학 △삼양동장 김승완 △외도동장 김무룡 △이호동장 김영구 ▷지방사무관급 전보 △기획예산과장 양대윤 △자치행정과장 김남윤 △마을만들기추진팀장 이영순 △경로장애인복지과장 유태진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성진 △여성가족과장 고숙희 △위생관리과장 김익수 △탐라도서관장 권석자 △공원녹지과장 박두원 △절물생태관리사무소장 이창흡 △축산과장 김병수 △정보화지원과장 이경훈 △제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함천보 △구좌읍장 양두환 △조천읍장 고구호 △우도면장 윤영유 △아라동장 김덕홍 △노형동장 조용보 △외도동장 김무룡 △이호동장 김영구 △일도1동장 직무대리 장임순 △연동장

社說

삼성은 다시 심사숙고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 진정한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마감일이 3일 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삼성물산 주가 5만7234원, 제일모직 15만6493원이 한계선이다. 주가가 그 이하로 내려가면 주주들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삼성물산의 매수청구권 행사규모가 1조5000억원을 넘어서면 합병이 취소될 수도 있다.

지난달 17일 합병 주주총회가 열린 이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가는 내리막길을 걸어왔다. 외국인들은 삼성물산을 비롯해 삼성계열사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도해 왔다.

그 결과 삼성물산은 이미 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을 밑도는 수준까지 떨어졌다. 제일모직 주가는 아직 행사가격을 웃돌기는 하지만 차츰 접근하고 있다. 이같은 주가 흐름은 합병주총 이후에는 주가가 오를 것이라던 일부 '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엎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삼성물산과 제일모병 합병의 타당성을 시장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무리이고 잘못된 결정임을 시장이 입증해 주었다는 것이다. 합병주총이야 삼성이 젖먹던 힘까지 동원해서 마무리지었지만, 주가는 시장경제의 원칙과 논리로 볼 때 합병을 더 이상 고집하지 말라는 요구를 보낸 것이다.

삼성은 시장의 이같은 요구를 겸허하게 수용해야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불확실하다.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될 경우에도 모두 사들일 만큼 자금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믿는 듯하다.

그렇지만 삼성이 다시 성찰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과거 삼성이 무리해서 강행한 사업은 대체로 실패로 끝났음을 세상은 다 알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삼성은 1990년대 주변의 우려와 비판을 무시하고 자동차와 석유화학 사업을 벌인 결과 빚더미에 올라앉은 채 실패하고 말았다. 삼성이 이번 합병을 끝내 강행할 경우 훗날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

다만 최근 주가와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은 합병 이후의 앞날이 순조롭지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 그러므로 삼성은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양육권 변경 가능할까

생활 법률



부실·가혹 양육때 신청 가능
상대방 주소지 법원에 제출

A(31)씨와 B(31·여)씨는 결혼한지 2년만에 갈라섰다. 현재 A씨가 양육권을 갖고 있어 세 살배기 아들을 돌보고 있으며, 비양육권자인 B씨는 매달 A씨에게 3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B씨는 A씨가 아들에게 밥을 제때 안주고 잘 돌보지 않는다고 판단, 본인이 아들을 키우겠다고 말했지만 A씨에게 거부당했다. 최근에는 A씨가 B씨에게 계속해 아들을 보여주지 않아 두사람이 몸싸움까지 벌였다.

이럴 경우 양육권자의 변경이 가능할까.

양육을 담당하지 아니한 부모가 양육비를 매달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지만 양육권자 변경 또한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상대방이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거나 가혹하게 대할 때 양육권자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일단 법원에 가서 심판청구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청구서에 청구인 본인이 아이를 키우겠다는 내용을 기입해야 한다. 이어 재판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한다고 기재해야 한다.

첨부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1통과 기본증명서(청구인·상대방) 각1통, 기타 주장사실을 입증하는 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또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에서 양육권 변경 신청을 꼭 해야 한다.

양육사건과 관련된 관계인(친척 등)만 법정에서 참관이 가능하며 자녀가 15세 이상일 경우 자녀가 판사에게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 /유선준 기자 rsunjun@



강원라마다 호텔 & 리조트 국내최초 원덤본사와 기술 자문 및 책임 TSA 약정체결!
별장
호텔
수익
"2천만원"만 있으면!
5년후 원금보장 +α까지 되는 호텔
객실당 실투자 2천만원대
수익률 23%
RAMADA
Hotel&Resort
㊗ 강원라마다호텔&리조트에 ㊗
'테디베어 올림픽테마파크' 개관 예정
O2
산소도시
태백
수익안심보장제도
계약즉시 수익지급!!
5년 후 원분양가+α 환매조건 분양
업무제휴사
고정고객
확보
분양가
9천만원
실투자
2천만원대
3년 수익금
약 2,400만원
즉시 지급
5년후
원분양가
환매보장
잔금납입 즉시 이전등기
계약즉시
수익발생
국내 체인 라마다호텔
연10일
무료이용
테디베어 MOU
여행사 MOU
태백 레이싱파크 MOU
분양문의 02)549-
올림픽파크 전시관
청약방법
청약금 : 100만원 [외환은행 630-009601-061]
예금주 : (주) 생보부동산신탁
※미 계약시 청약금은 전액 환불됩니다.
| 운영자문 (주)산하HM
| 자금관리 SAENGBO 생보부동산신탁
※생보부동산신탁은 상기 '수익금 지급 및 관리' 와 무관합니다.
| 인테리어 설계 및 시공 (주)도모건축
| 시행사 (주)월드스포츠
■대지위치 :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 24-10 외 ■대지면적 : 7,186㎡(컨벤션 및 기타부지 제외) ■건축규모 : 15,133.58㎡
(지상면적 14,186.06㎡ / 지하면적 947.52㎡) ■시설규모 : 객실 305실, 10개동(동당 30~31실)
■객실타입 : Standard 177실, Deluxe 90실, Suite 28실, 단체실 10실(총 305실)
분양
문의
02)756-2000